

인천 수능성적 소폭 상승... 하위권 여전

3년 내내 수능 1·2등급 점유율 최하위를 유지하던 인천시가 2014학년도 시험에서는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따르면, 1·2등급 점유율이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5위로 1단계 올랐다. 인천보다 못한 곳은 전남(16위)과 세종(17위)이었다.

전체 등수는 17개 시도 중 지난해 14위에서 13위로 상승했으며 성적이 낮은 8·9등급 점유율도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소폭 개선됐다.

특히 1·2등급 점유 학생 비율이 평균 8.28%로 수능 성적 집계 이래 최초로 8%대를 넘어섰기도 했다.

1·2등급 점유율 영어B는 지난해에 비해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오르고 수학

1·2 등급 점유 학생비율 8.28%...전국 15위

특목고 소재 '중구' 과목별 상위지역 다수

▲인천 영역별 1·2등급 점유 현황

학년도	종합 순위	국어A 등급 비율	국어B 등급 비율	수학 A 등급 비율	수학 B 등급 비율	영어A 등급 비율	영어B 등급 비율	시도 수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2014	15/17	8	16	8.8	13	6.7	16	8	10	11.4	15	6.8	12	17개
2013	16/16	8.2	16	7.7	16	8.2	9	6.3	16	7.7	16	8.2	9	16개
2012	16/16	8.2	15	6.6	15	7.7	10	7	15	6.4	16	7	15	
2011	16/16	8.3	15	6.7	16	8.1	13	6.4	16					

/제공=인천시 교육청

B는 중위권을 유지했다.

8·9등급 점유율 역시 영어A·영어B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상승했고 수학B가 중상위권을 지켰다.

실제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는 표준점

수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향상됐다. 특히 과목별로 전국의 상위 3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인천 중구가 다수 포함돼

중구에 위치한 특목과와 국제고, 과학고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구는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B의 4개 분야에서 전국 30위 이내에 랭킹됐다. 강화군과 연수구도 국어A와 수학B 과목의 1·2등급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11월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 전국의 60만6813명이 응시했다. 대부분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적이 높았고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의 성적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서로 성적이 높아 지역별 교육 격차가 여전히 심하다고 확인됐다.

인천은 89개 학교에서 2만5403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했다.

/정지혜 기자 jih@incheonilbo.com

인천청장 치안정감 격상될까

기재부 마지막 검토 단계...통과시 사실상 승인

인천경찰청장 직급 격상안이 '기획재정부'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두고 있다. 사실상 최종 관문인 기재부 검토 단계만 통과하면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은 경찰 내 2인자급으로 우뚝 서게 되고, 300만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경찰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경찰청장 치안정감 격상'을 위한 직제 개정안을 인천행정부에 제출했다.

현 인천경찰청장 계급은 치안감이다.

이후 안행부 심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현재 기재부 내부 검토 단계에 오른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행부로부터 직제 개정안에 대한 예산 협의 요청이 들어와

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를 끝내고 결과를 내는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를 통과한 뒤에는 법제처 법안 심사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승인되지만, 사실상 기재부 단계만 통과하면 직제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게 경찰청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만 통과하면 인천경찰청장 직급 격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국무회의 등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장 격상안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아쉽게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제출한 인천경찰청장 계급 격상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21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조추첨식'에서 수구 조추첨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AG 서막...주요 10개 종목 조추첨 완료



서막이 올랐다.

21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드민턴, 체조, 카바디, 세팍타크로, 수구, 럭비, 핸드볼, 배구, 농구, 축구 등 10종목에 대한 조 추첨식이 열렸다. 같은 자리에서 구기종목에 쓰일 각종 공인구도 함께 공개됐다. 행사장은 참가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경기단체 임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전체적으로 조용했다.

경기에 대한 대회관계자들의 분석과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실수도 나왔다. 조 추첨 과정에서 대형 화면에 북한 대신 한국이 올라가는 전산입력 실수가 불거

지자 북한 대표단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세팍타크로 레구 종목은 대형 스크린에 'Regu'를 'Reau'로 표기에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행사에는 조 추첨자로 배드민턴 라경민, 체조 여흥철, 핸드볼 임오경, 배구 장운창, 농구 박찬숙, 축구 최순호 등 과거 스포츠 스타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잠자리 대란' 희박...일부 미완공 '찜찜'

AG 준비사항 점검 ④ 숙박

E4호텔 등 아직도 공사 중

시 "임시 사용허가 받을것"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보러 올 관람객들은 몇명이나 인천에서 묵을까. 정부와 인천시, 대회 조직위원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묵을 곳을 모두 합해 하루 평균 1만3824실의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비로 2만5910명을 추가로 수용할 휴스테이 가정까지 지정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수으로 보면 이른바 '숙박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시의 숙박시설 정책은 매번 잡음을 냈다. 대표적으로 대회에 써야 할 주요 숙박시설이 완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E4호텔을 국내·외 인론이 미디어 속으로 활용하기로 예정이었다. 하지만 E4호텔은 공사가 덜 된 반쪽짜리 호텔이었다. 일각에서는 대회 시작 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와 공사는 호텔 객실이 부족해 꼭 활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했다. 지난해 E4호텔과 해당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지만, E4호텔의 공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만 받아 둔 상태다.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과 힐리데이인 호텔도 마찬가지다. 두 호텔은 각각 270실, 300실 규모로 대회 기간 활용될 예정이었다. 두 호텔 역시 E4호텔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준공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을 대회에 써야한다는 명분으로 도시계획을 바꿨다가 특혜의혹이 일었던 사례도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계양구 A호텔과 부평구 B호텔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호텔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일자 호텔을 대회에 꼭 써야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만약 대회 전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규제 완화를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호텔은 규제 완화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야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는 사실상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대회 사용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부터 규제완화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호텔은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경로로 숙박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백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내일 신문 읽니다

갯골의 바람... 그대로의 사랑

2014 시흥 갯골축제

8.29(금) - 8.31(일)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해설가와 함께하는
시흥 갯골 길 걷기

8월 29일(금) ~ 31일(일)

10:00 ~ 18:00 (사전접수)

	29(금)	30(토)	31(일)		29(금)	30(토)	31(일)
오라차차 아리랑!	17:00	18:00	18:00	시흥시립여성합창단 & 시립전통예술단	18:30	18:30	18:30
시흥음악엔터테인먼트 오케스트라	-	19:30	-	Essentia Trio	19:30	19:30	19:30
전국아쿠스틱 음악제	예선! 19:30	-	본선! 19:30	수중공연 "연풍연화"	20:00	20:00	20:00
미2사단 축하공연	-	20:30	-	인형극 "공룡엄마"	11시/15시 (사전접수)	11시/15시 (사전접수)	11시/15시 (사전접수)
뉴스포츠 축제	10:00 ~	-	-	농게야, 갯골에서 놀자!!	10:00 ~ (사전접수)	10:00 ~ (사전접수)	10:00 ~ (사전접수)

주최 : 시흥시

후원 : 시흥시의회, 환경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농림

주관 :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031-310-6747, www.sgfestival.com]

인천시 '감사관실' 공직사회 불만 팽배

인공노 "지역편향·장기근무자 양상" 비판...민선 6기 인사 지적도

인천시청 감사관실에 대한 공직사회 의 불만이 심상찮다.

시 공무원노조가 민선 6기 인천시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유독 '감사관실'에서만 조목조목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인공노)은 21일 시 감사관실에 대해 "지역편향, 장기근무자 양상 등 대표적인 적폐의 온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포문을 열더니 "최근 몇 년간 마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할 정도의 조직 확대를 도모해 놓고도 부패

오명을 쓴 간부들은 검정에 의지하고, 애꿎은 하위직들만을 '때려' 잡다가, 이제 잉여인력으로 노조의 연금대응 감시, 축하 화본 감시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감사관실은 민선 5기 때 3급으로 감사관이 직급 상향했고, 조직 확대 등으로 외형이 커졌다.

현 감사관실은 9개팀으로 구성되는데 이 4급의 재정감사단장을 두고 있다.

인공노는 "현 부시장 부임이후 잡음

이 끊이지 않음에도 민선 6기 출범이후 최우선으로 계약파기 하지 않고 있는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 S감사관은 민선 5기 때 임명된 개방형 계약직이다.

인공노는 이밖에도 민선 6기 인사에 대해 "인천아시아게임 2개월전 중추업무를 관장하던 고위간부를 파견 복귀 승진시키는가 하면 급기야 나이 때문에 직무대리 시간이 촉박했는지 바로 3

급으로 발탁(?)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단체는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첫 정기인사가 아시아게임의 성공개최와 이후의 연착륙을 위해 소폭의 인사만을 실시한 관계로 전체적인 인사기조를 예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이해된다"며 최종평가는 아시아게임 이후 인사 때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i96@incheonilbo.com



신한銀 "선수들 응원합니다"

신한은행은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게임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을 응원하는 'Tops Club Award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Tops Club Award는 2014 인천아시아게임 전 종목 메달 수상자에게 메달 색깔에 따른 구분 없이 신한 금융그룹의 대표 우수고객제도에

타 클럽의 최고 등급을 10년간 부여해 준다. 이번 인천아시아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에게 부여하는 최고 등급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와 함께 금융, 법률, 세무, 여행 및 쇼핑 등의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사진제공=신한은행

기관장 'AG성공개최 지원' 한마음

유정복 시장 주재 간담회 입장권 선물 등 홍보요청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지역 내 주요 기관장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모든 시민이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 선물하기 등의 캠페인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1일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유정복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 기관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국정원, 17사단, 해양경찰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회 홍보를 요청했다. 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218만5000여명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가 제안한 경기 관람 운동으로는 경기 입장권 선물하기, 1시민 1경기 관람하기, 1단체 1경기 이상 관람하기 등이 있다. 특히 공직자 가를 체육행사를 경기 관람하기로 바꿔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북한 참가를 대비해 수송 및 숙박 등 분야별 편의 제공에 각 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응원단 신



21일 유정복 인천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인천아시아게임·장애인아시아게임 고위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시의회·교육청·인천지검·인천경찰청·17사단 등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입을 독려하고 안전 대책 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변보호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정원, 통일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건의했다. 시는 또 양산 요트경기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어선과 경기 요트와의 마

찰 방지 등 해상경비와 불법어업 단속에 힘써줄 것과 경기장 주변 노점상 단속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장권 구매와 홍보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달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K-water가 21일 아라뱃길을 활용한 서해도서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 등에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서해도서와 아라뱃길을 연계해 서해도서 지역주민의 생계·생존·생활의 삼중고를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아라뱃길 이용을 활성화되도록 손

인천경실련-K-water 도서민 경제활성화 협약

을 잡았다.

인천경실련과 K-water는 ▲서해5도 서 수산물에 아라뱃길을 이용해 서울·수도권으로 운송통한 판로확보 ▲서해도서·아라뱃길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활성화 ▲서해도서 어민들의 수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기타 서해도서와 아라뱃길을 이용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인천경실련과 K-water는 협력사항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정책추진단에 인천경

실련과 K-water, 서해도서 어민 등이 참여한다.

한편 오는 30일 서해도서 어선이 아라뱃길로 들어오는 입항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해도서 주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i96@incheonilbo.com

동구·옹진군 재정안전성 위험순위

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못 줘...세입구조 취약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만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란 오명을 썼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78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서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지자체 순이다. 인천은 동구와 옹진군 2곳이고, 경기도는 한 곳도 없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 4곳, 대구 2곳을 비롯해 울산과 대전 각 1곳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은 2013년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썼다. 그러다 1년만에 '재정안전성'에 빨간등이 켜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8곳에서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안행부는 올 당초 예산을 분석할 때 옹진군의 경우 자체 수입은 196억원이지만 인건비는 무려 3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동구 또한 자체수입 206억원, 인건비 313억원으로 집계했다. 광역단체 중 부산의 서구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체 수입은 189억원 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무려 307억원으로 약 1.62배였다.

재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i96@incheonilbo.com

www.incheonilbo.com

인천일보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안동로 226(영동4가 18-1)
442-834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5(창성남동 2층 경계문)

회장 김정섭 발행·편집인 박길상 주필 조우성 편집국장 백종환

대표전화 인천 032-4520-114 경기 031-232-2288
광고접수 032-4520-151 구독신청 032-4520-127

1988년 4월 25일 가-49호 등록 / 인천일보는 신문료규정 및 그 실행요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0,000원/한부 500원

금 공장 매

★ 위치 : 석남동 목재단지내
10m×10m 삼거리코너

★ 공장용지 1,330평

★ 공장건물 지층 115평
1층 784평 (층고5.0m)
2층 640평 (층고3.5m)
3층 640평 (층고4.0m)
천막동 250평

★ 동력 650kw / 대형리프트유

★ 중봉로 인접 / 대형차량 진출입 원활

★ 현목제품가공공장
건물평 많은업종 최적

★ 금액 : 66.5억 (평당500만)

인천지역 공장/창고/용지 매매, 임대 전문

공장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

032-577-1900
010-5635-9388

부동산홈페이지 : www.s29.co.kr

금 공장 매

소재지 : 인천 서구 석남동
대지 : 1,459㎡

건물 : 상가동 1층 288㎡
2층 288㎡
공장동 1층 709.5㎡

현 임대수익율 5%

조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조은영

032-588-2949
010-9409-8705

도화동 철제상기 40평형 급매

호이스트 2.8TON, 동력 15KW (증설가능)
매가 3억2천만원 (조정가)

강화 공장&창고

대지 500평 건물 70평 창고60평 계획관리지역
매가 4억5천만원

단독주택급매 5억7천만원

(송의동 수봉공원인근, 준주거지역)

대지 71평 (234㎡ 내부도로코너 정사각형)
- 1층 : 34평 (제조, 근산, 동력10kw)
- 2층 : 38평 (주택34평, 제조4평)
- 3층 : 38평 (주택)
- 옥상사용가/주차6대/건축년도 2010년

■ 추천용도 ■
- 주택,소형공장,각종대리점,창고,제조시설

기적동 공장 급매13억

- 대지 152평 건물연면적 240평
- 화물승강기유, 동력설치, 주차13대
- 연8%수익예상, 도로코너 20M X 10M

■ 추천업종 ■
- 판매점, 음식점, 차량광택점, 가구점 등

임대공장 (창고) 즉시입주

- 2층 : 260평~2,000평 평당 13,000원
<2층으로 1TON 차량진입 램프설치>

대한공인중개사
032-578-4585

매 스크린골프장 매

(신규창업 중합권선텅 해 드립니다.)

① 남 구		② 서 구	
스크린골프장 및 건물매매 (건물전체가 스크린골프장 임) 월매출 : 6,000만원, 매매가 : 18억7천		골프장 및 상가매매 전용면적 : 270㎡ 매매가 : 7억	
③ 남 동 구			
전용면적:330㎡ 보:2,000, 월:170 시+권 : 5천	전용면적:450㎡ 보:2,000, 월:200 시+권 : 9천	전용면적:660㎡ 보:2,000, 월:350 시+권 : 1억5천	
④ 연 수 구			
전용면적:330㎡ 보:3,000, 월:120 시+권 : 4천	전용면적:330㎡ 보:5,000, 월:220 시+권 : 6천	전용면적:350㎡ 보:1억, 월:250 시+권 : 3억5천	
⑤ 계 양 구		⑦ 서 구	
전용면적:500㎡ 보:7,000, 월:250 시+권 : 9천	전용면적:560㎡ 보:1억, 월:400 시+권 : 1억5천	전용면적:400㎡ 보:2,500, 월:150 시+권 : 8천	
⑥ 부 평 구		⑧ 독 점	
전용면적:500㎡ 보:5,000, 월:270 시+권 : 4천	전용면적:380㎡ 보:2,500, 월:170 시+권 : 1억8천	전용면적:500㎡ 보:2,000, 월:230 시+권 : 1억2천	

☎ 032-574-8898



21일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a@incheonilbo.com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은·신학용 의원 영장심사 출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웅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인천 계양갑) 의원이 21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관련기사 19면〉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50분부터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집에 숨긴 혐의와 지난 2007년부터 ㈜월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신, 오후 4시 ... 박, 당초보다 2시간반 늦어
檢 강제 구인 ... 자정 전 구속 여부 판가름

매달 2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관여한 혐의, 전 비서에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여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고 잠적했다가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2시간30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8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에 수사관을 투입하고 의원들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박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검찰은 22일 0시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고, 국회에 체포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골프인 축제 ‘프레지던츠컵’ 준비 시동

시-PGA 투어 면담 적극적 지원 약속 ... 내달 추진단 구성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 세계연합골프대항전인 ‘2015 프레지던츠컵’ 준비가 본격화됐다. 5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골프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오는 2015 프레지던츠컵 개최를 앞두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PGA 투어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PGA 투어 팀 편성 커미셔너(대회장) 친서를 전달하고,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사항에 대해 요청했다.

유 시장은 “프레지던츠컵 대회는 전세계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2014 인천아시아안개임과 같이 매우 중요한 대회”라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PGA 투어는 “인천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하며 오는 11월 초 팀 편성 커미셔너가 직접 인천을 찾을 계획이다”고 답했다.

2015 프레지던츠컵이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탠 풍산그룹 유진 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유 회장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 비

서실장과의 대회의 중요성 등을 전달했다”며 “대통령이 명예대회장 역할을 맡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회 오프닝 세러머니에 대통령 참석 등을 요청했다.

대회 막을 이미 올랐다.

PGA 투어는 G-타워 19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회 개최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으로 프레지던츠컵 대회 추진단 구성을 할 계획으로, 조만간 공동서한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타 이를 스폰서를 비롯해 민간기업 참여 등

을 유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오는 2015 프레지던츠컵 단장 발표가 있었다. 팀 편성 커미셔너는 인터내셔널팀 단장에 닉 프라이스(호주)를, 미국팀 단장에 제이 하스를 임명했다.

특히 인터내셔널팀의 수석 부단장은 ‘뱅크’ 최경주가 선정됐다.

2015 프레지던츠컵은 2015년 10월6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개최지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으로, 시와 PGA 투어는 지난해 10월 현금 100만 달러와 현물 300만달러 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프레지던츠컵은 1994년 미국에서 처음 열린 이래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번갈아 격년제로 열린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개최국 현직 또는 전직 행정부 수반이 대회장을 맡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시 지역행복 생활권 확대되나

김포·시흥시 편성논의 ... 확정 땀 협력 강화기대

인천시가 김포·시흥과 함께 지역행복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김포시, 시흥시와 함께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을 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천에서 지역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로,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의 활동범위에 따라 각 지역을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인천은 지난 3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발표에 따라 부천과 함께 ‘시범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시는 부천과 끊어진 생태길 잇기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김포·시흥과의 논의는 시범 생활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역행복생활권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희망과 협의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다. 당초 김포시와 시흥시는 인천과 같은 생활권에 묶이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진전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김포시와 시흥시가 최종적으로 인천과 같은 생활권으로 묶일 경우, 인천은 북부·동부·남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이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시는 “2014~2018년 인천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 기반 확충·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제고·교육여건 개선·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지역복지 및 의료 발전 등 5대 분야별 중심 추진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장 정리가 끝나면 협약을 거쳐 공동사업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시 ‘세계 책의 수도’ 알리기 분주

추진상황 보고회 ... 역사문화자원 홍보방안 검토

인천시가 조만간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을 대비한 최종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인천의 역사문화자원인 마니산 사고(史庫)와 외규장각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21일 오전 10시 ‘유네스코 2015 책의 수도’ 영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방향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책 형태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책 읽는 문화

의 생활화 ▲창작·출판의 활성화 ▲인천 인문 르네상스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등이 있다.

시는 현재 ‘책으로 하나되는 세상(북스 포 올·Books For All)’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다문화 도서관 건립, 책의 수도 기념도서 발간 등이 있다.

시는 조만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은 내년 4월23일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오는 2016년 4월22일까지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청장 치안정감 격상될까
▶1면서 계속

기재부가 계급 격상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예산 등을 미뤄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찰 내·외부에서는 ‘이번 만큼은 직제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경찰관은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 청장 격상안을 통과

시켜 주길 바란다”며 “인천아시아안개임 개막을 앞둔 인천에서 인천경찰 수장의 직급이 다른 유관 기관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장 격상은 이미 지역사회의 ‘숙원’이 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인천경찰청장 계급 격상을 골자로 한 ‘인천경찰 치안 역량 강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건의문을 보냈다.

/박범중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상가, 주택전문)

(3.3㎡당 250만원)

(원룸, 인테리어전문)

(주택 수리전문)

▶ 설계·신축공사·증축공사 ◀

▶ 방수공사전문·용도변경 ◀

▶ 보일러수리·공장수리 ◀

▶ 공업사샷전문 ◀

※ 견적상담, 전화상담환영 ※

대동건축

(대표 박영기)

T.(032)766-1266, F.766-3666

H.P. 010-4688-4551

인천시 동구 금곡동 54-80(동구청정문앞)

★ 금 매 ★

공장부지

소재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면적

대지 4,824.9㎡

연면적 2,371.35㎡

동력

450kW

준공연도

2004년 12월

추천용도

전기, 전자정보분야

매물특징

- 취득세 전액감면
- 법인세 5년간 50%감면
-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5분 거리
- 주요 고속도로망 근접으로 교통편리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근접
- 쾌적한 환경, 각종 개발 호재

010-6729-3170

소유주 직접거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116-중42302호

발기부전 약물치료와 보형물삽입수술

원터치 자동 주입기

발기부전의약물치료

- 고개숙인 남성들에 희소식

◆ 간편한 휴대성 !

◆ 발기 지속 효과 !

◆ 만족스런 부부관계 !

원터치 자동주입기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1.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성기능 장애

2. 노인성 발기장애 및 당뇨병등의 신체이상으로 인한 발기력 감퇴

3. 약물성, 가벼운 혈관성, 가벼운 신경손상 신경질환에 의한 발기장애

4. 원인 불명의 발기장애

※ 원터치 자동주입기를 이용한 약물주입 요법은 성욕 및 발기 지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후 사용하는것이 좋다.

보형물 삽입 수술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 심각한 것이 중증 발기부전이다. 중증 발기부전은 먹는 약이나 주사로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골극형

펌프형

수술받는 대상

- 약물로 발기부전 치료가 안되는 경우
- 다른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동맥성, 정맥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된 경우
- 외상이나 수술, 암 치료후 발기부전이 온 경우 시술후 기계 고장 및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의 상담과 수술이 필수!

인천코넬비뇨기과 의원

☎032-423-9116

여야 극한대치...출구없는 세월호 정국

여야 정치권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경색된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세월호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야당을 압박했으며, 여당과 유가족 사이에 낀 새정치민주연합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 여러분은 합의안을 수용해 빨리 진상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 당의 추천권을 내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 또한 “가족들의 입장도 심본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충분히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상 대표자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현재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될 게 없다”며 “야당에서 이제 속제를 하면 된다”고 재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거부 입장에 따라 여당과의 재재협상에 나서기도 합쳐졌으며, 합의안을 추진한 뒤 법 제정 절차에 돌입하기도 어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들의 반대 결정으로 불발 위기에 내몰린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특검 추천권 사전동의 사실상 내줘 최대양보” 野 ‘유족, 특별법 거부’ 따라 소통·면담 지속 모색

은 상황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 소통을 계속 하겠다”며

“동시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충의를 모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변인은 “거듭 면담을 요청하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든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

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김 씨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유가족 대표들과의 세 차례 면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과정이 한 치의 의혹이라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여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정의당 시당도 ‘단식농성’

세월호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가족대책위 요구알리기 나서

정의당 당대표단과 의원단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이어 정의당 인천시당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3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함께 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합으로 끝나버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며 “왜곡되고 있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과 진심을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2차 협상이 야합으로 끝나고, 협의안은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거부됐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400만 국민이 참여한 만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은 내곡동 특검보다 못하다는 비난도 내놨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이 합의안은 진상 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며 “수가·기소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재합의안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수차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던 박 대통령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오씨를 만나야 한다”며 “또 유족들 모두가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과 4·16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국민들 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영종하늘도시 ‘초대형 싱크홀’ 발생

인천 2호선 공사 등 지형 불안...지하수 유입 원인 분석

수도권지역에 싱크홀 현상이 부쩍 늘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이 지역 싱크홀은 최근 관심이 집중된 서울 석촌호수 인근의 싱크홀 대비 14배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상 싱크홀 현황에 대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직경 35m, 깊이 10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달 5일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직경 2.5m 가량으로 그동안 발견된 싱크홀 크기가 주

로 2~4미터였고 가장 큰 것이 10미터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대형급이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현재 집계 중이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인근에는 신명스카이뷰와 영종힐스테이트 등 30~38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으며, 총 7개 단지에 72개 동 8800세대가 지난 2012년부터 들어섰다.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지구로 개발돼 대형 토목공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검단신도시에 직경이 11~14미터에 이르는 싱크홀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등 지형이 불안해지면서 지하수가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새정치 시당 ‘이중행태’ 검찰수사 비난

“음란행위 간부 솜방망이 처분...신학용 의원 수사는 신속 사법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1일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 등으로 자당 소속 신학용(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형평성 잃은 이중 행태적 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지난 20일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이례적인 야간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21일에는 의원회관을 급습해 해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당은 “국가와 검찰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검찰 최고위급 간부의 길거리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사표 수리와 면직이라는 솜털같은 처분으로 수리와 면직이라는 솜털같은 처분으로 수리를 밟으며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과정은 유독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만 망신주기 수사를 펼쳐왔다”며 “‘정황’만을 근거로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매일같이 중계하듯이 언론에 공표해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당은 “신 의원의 혐의 입증 여의치 않자 또 다른 입법로비 의혹, 출판기념회 대가성 모금 의혹 등 최초의 입법로비 수사가 아닌 별건에 대한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법으로 허용된 범주며, 신 의원에겐 적용한 기준을 모든 의원들에게 들이댈 경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여당의원들에게는 무려 4달 이상의 방어준비를 할 기회를 줬고,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또한 잃은 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당은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대가성 입증 확인되기 전까지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서울예술종합학교 입법로비 의혹이 아닌 제2, 3의 별건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야당의원 죽이기 악습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저희 비투비 가족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믿음과 신뢰로 신속히 기업과 개인에게 연결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드립니다.

매매물건

- ▶ 인천 중구 향동7가 대지 7,050.6㎡(구2,133평)
-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대지 2,900㎡(구877평)
- ▶ 인천 중구 향동7가 대지 594.8㎡(구180평) 건물 492㎡(구148평)
- ▶ 인천 서구 왕길동 대지 982㎡(구297평) 건물(공정)391㎡(구118평)
- ▶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186-3 대지 4,295㎡(구1,299평) 공장허가필 분단금원남
- ▶ 인천 서구 오류동 810번지 외3필지 5,584㎡(구 1,690평)
- ▶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0-11번지 상업지역 1,858㎡(구 562평)
-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토지매매 평당 250만원
- ▶ 인천 연수구 연수동 빌라매매 62,000만원
- ▶ 그외 다수물건 보유중~~~~

문의전화 : 032-859-8945

● 대표공인중개사 : 조수연

● 중개보조원 : 신주호



새천년장례식장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임무편의 제공

- ▶ 최신 장례시설 완비
- ▶ 무료주차장 완비(300대)
- ▶ 차량, 상담 24시간 대기

T / 032)552-3100 M / 010-5253-1302 www.newfuneral.kr
위치 / 서운동<현대자동차 운전학원 옆, 계양종합 사회복지관 옆>

국방부 ‘부영공원 시굴·정화 병행’ 반복

“문화재 발굴 마무리 후 토양오염 해결” 계획 변경 시민단체 “편의적 행정 멈추고 뚜렷한 대책 마련을”

부영공원의 문화재 시굴과 토양 정화를 병행키로 했던 국방부가 정화 사업을 시굴 조사 후로 미뤄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일보 7월4·8·29일자 5·19면>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문화재 시굴 조사가 완료된 뒤 토양 정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부영공원의 토양 정화와 문화재 시굴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의 일부 면

적에서 시굴 작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대상 면적 가운데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5만4930㎡면적부터 시굴을 시작한 것이다. 그밖에 7만2870㎡면적은 국방부가 토양 정화 사업을 우선 진행하되, 문화재 연구원 관계자가 입회해 문화재 매장 여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을 문화재 시굴이 마무리 된 뒤 토양 정화 사업

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현재 문화재 시굴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면적에 대한 정화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며, 시굴 조사가 마무리된 후 나머지 면적의 정화 계획도 세운 뒤 한 번에 정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약속이 토양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던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그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주민의 생명을 최

우선으로 지켜야 할 국방부가 비교적 편한 행정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중요한 두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한 국방부가 이제 와서 편의적 발상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정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뚜렷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둘로 나눠진 공원 부지의 토양 정화를 따로 진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이 아닌, 두 개의 사업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병행이 어렵다”며 “현재 정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문화재 시굴이 마무리 된 뒤 곧바로 정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성모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 획득

첨단의학 국제경쟁력 확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를 받았다

고 21일 밝혔다.

인체유래물은 인간에게서 획득한 조직·세포·세포주·혈액·체액·DNA등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인체유래물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성모병원 정용안 인체유래물은행장(핵의학과 교수)은 “인체유래물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을 개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체유래물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성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 앞으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연구 자원인 인체유래물을 확보하고 정도관리해서

질병 연구자들에게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인체유래물을 획득·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증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인체유래물을 질병 예방과 치료 등 보건의료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성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 정보 관리실, 검체 처리실, 검체 저장실을 운영해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인체유래물 대상자 선정, 생명윤리 및 안정성 확보, 질환별 특화자원 확보, 검체의 정도관리를 통한 안정성 평가, 24시간 검체관리 시스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용안 인체유래물은행장은 “이번 지정으로 유전자 연구를 통한 맞춤의료 및 신약기술 개발, 첨단 의학의 연구, 의료시장 국제화에 따른 연구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천대·안하대 오늘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세월호 의사자 故김기웅 명예졸업장

인천대와 안하대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일제히 열린다.

인천대 학위수여식에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중 승객을 구하다 숨져 의사자로 지정된 고 김기웅(28)씨에 대한 명예졸업장이 수여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인천대는 22일 송도캠퍼스 공연장(23호관)에서 최성을 총장, 정수영 총동문회장, 박남춘 국회의원 등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6명, 석사158명, 학사 953명 등 총 1137명이 학위를 받게 된다.

학위수여자 중에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하다 숨져 의사자로 지정된 고 김기웅씨에 대한 명예졸업장을 어머니 김광숙 여사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김씨는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전공을 마친 뒤 올 2월 수료했고 영어졸업 인증제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학교측은 김씨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인하대도 22일 본교 대강당에서 2014

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58명, 석사 507명, 학사 1117명, 최고경영자과정4명 등 총 1745명에 대한 이 학위를 수여한다.

우수 연구실적 표창인 총장상은 의학과 김일두(32·박사)씨와 화학·화학공학 융합학과 록나스(36·내발·박사)씨가 차지했다.

김씨는 국제논문 10편, 국내논문 2편, 국제발표 13편, 국내발표 5편의 실적을 거뒀다. 록나스 씨는 국제논문 11편, 국내발표 7편 등의 실적을 올렸다.

대학원장상을 수상한 대학원 컴퓨터 정보공학과 이기성(36·박사)씨는 지난 2005년 박사과정에 입학해 병역특례로 3년간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위성인 무궁화 5호에 연동되는 통신 시스템에서 호처리 파티의 개발을 담당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박사과정에 복학해 국제논문 3편과 국내논문 5편, 국제발표 11편, 국내발표 3편, 국내 특허등록 5건, 미국 특허출원 1건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학부 전체 수석 졸업의 영예는 기초의 과학부 임정환(23)씨가 차지했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미래인재 육성 학습의욕 고취

영흥화력본부 지역학생 장학금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본부(본부장 손광식)는 지난 20일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자금 및 장학금은 영흥지역 거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별로 대학생 75명에게 2억4400만원, 중·고등학생 290명에게 1억4900만원, 초등학생 215명에게 2320만원 등 총 4억16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학자금 지원은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6815여명에게 45여억원을 지급했고, 장학금은 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605명에게 10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김철규 영흥화력 경영지원처장은 “영흥화력본부의 모토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라면서 “지역의 소중

한 인적자원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영흥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AG성공기원 미래포럼·한마음결의대회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원부희)는 21일 인천여성복지관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성공기원의 뜻을 모으고자 미래포럼과 한마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승언 교수는 아시아 경제 개척로 인한 인천의 국제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역설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로 여성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여성과 여성단체의 역할이 양 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더 나아가 시정참여와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포럼이 끝난 뒤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천AG·APG 성공개최 기원 한마음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석바위 시장 앞에서 시장상인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원부희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 대회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 시키겠다”며 “대회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서포터즈 활동과 더불어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추석 ‘물가안전 관리대책’ 추진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 성수품의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구자혁 기자 ku.80@incheonilbo.com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당 회사는 2014년 6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명정공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8 (석남동)
청산인 이명경

리콜 알림

당사에서 2012년 1월에 생산하여, 표시사항에 제조년월이 2012년1월에 제조(2011년12월~2013년12월 구입)된 전기방식(BS-100)에 대하여 해당 제품 수거 및 교환을 실시하오니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당사로 연락하여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보성메디텍(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458번길 7 (효성동), 2층
TEL : (032)561-7731
FAX : (032)568-7731

인천일보 안내

인천일보 안내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의 광고효과를 얻습니다.

●대표 : 4520-1114
●광고 : 4520-1511
●팩스 : 765-8824

인천 소형공장 매매

● 소재지 : 가좌·C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개통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2층 264㎡(80평)	2층 331㎡(100평)
계 528㎡(160평)	계 661㎡(200평)

현금 8,000만원으로 내 공장 매면 임차도 가능함

● 기반시설, 혜택

- 등·취득세 50%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37.5%감면
- 화물엘리베이터(2): 설치되어있음
- 주차장: 216대 주차시설 완비
- 즉시 입주, 동력: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음

분양문의 032) 772-1680
032) 861-2900

주택 빌라 상가 방수전문

방수전문 건설업 면허업체
(방수, 미장, 조적면허)

월등한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경험, 철저한 A/S

- 상하수도 공사
- 건물 내외부 페인트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 크랙(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 방수용 외벽발수공사
- 설비배관 일반공사

현대방수건설(주)
HYUNDAI Waterproof Construction

www.hdbangsu.co.kr
TEL : (032)468-5353
TEL : (032)466-1904
FAX : (032)473-0904
상담 : 011-729-1707

각종공사 상담환영, 할부공사 가능

주택·상가·공장 신축, 증축

○완벽시공
○원가절감
○하자보증

주택: 평당 250~270만원
상가: 평당 220~240만원
공장: 평당 130~150만원

■ 주택·상가 건축
외부맞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외장미감제
내부미감: 아파트형 고급내장미감

■ 공장·창고 건축
철구조물+불연재판넬 (높은층고+공기단축+완벽방수)

☆공장 및 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내부구조 변경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외벽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德壽建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7-11
T.032)764-0518 / 휴대폰:010-5242-6533

어업지도선 낚아 서해 어업관리 차질

선령 평균 19.8년...37년 넘은 배도...고장찾아 인솔 어려움

선박 교체비 국비 못받아...인천시, 사고 우려 정부 설득중

인천시가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할 방침이었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지도선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배치된 웅진군 어업지도선 6척의 평균 선령은 19.8년이다.

특히, 백령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214호(132t급)는 건조된 지 무려 37년이 넘어 전국 77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가

장 오래된 선박이다. 이에 따라 서해 5도 어업 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해 5도 어장은 북한 접경해역이어서 웅진군 어업지도선 인솔 아래 조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낚은 어업지도선의 잦은 고장 때문에 원활한 어업 관리가 어렵다. 어업지도선 214호는 기관과 엔진이 워낙 낡아 백령도 웅기포항에 묶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출항한다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백령도 근해에서만 제한적

으로 어업지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214호와 선령 19년의 216호를 교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약 1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교부세로 어업지도선 교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인천시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공선의 경우, 선령 제한 규정이

없지만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해상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를 설득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제주 화물선 공백도 장기화해 물류 차질이 심각하다. 시는 지난 6월 해수부에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또는, 조속한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답이 없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제주와 한 선사가 인천-제주 항로 운영 의사를 밝히고, 화물선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항로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작거리 농산물로 밥상 꾸미게

21일 경기도 고양시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작거리 농산물로 만든 처서 밥상을 선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가 중간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으로 생산능가는 매장진열, 바코드 부착법 등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출하작정을 맺는다.

/연합뉴스

“추석용 사과·배 내달 2~4일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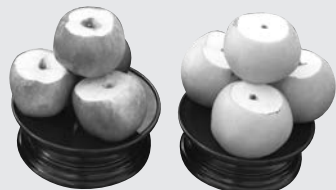
aT, 명절 성수품 가격 추이·구매 적기 제시

올해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내달 2~4일 사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햇과일 출하 물량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물용 수요가 많은 추석 10~14일 전, 제수용 수요가 많은 1~3일 전을 피해 4~6일 전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10년간 가격 추이와 작황, 비축물량 등을 종합해 추석 성수품을 사게 할 수 있는 구매 적기를 제시했다.

aT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선물용



수요가 추석 11~14일 전, 제수용 수요가 1~3일 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피해 5~7일 전인 9월 1~3일 구매하면 좋다고 내다봤다.

명태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수용 수요가 집중되기 전인 5~7일 전에 사면 상대적으로 싸다. 시금치는 제수용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3일 전을

피해 신선도를 감안해 4~6일 전이 최고, 배추와 무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추석 2~4일 전에 사는 것이 좋다.

한편, aT는 이번 주에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4인가족 기준 26개 성수품으로 차례상을 차릴 때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1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3000원으로 지난 주보다 각각 1.1%, 0.8% 떨어졌다고 전했다.

aT는 앞으로 제수용 사과 햇품의 출하량이 증가되면 성수품 구입 비용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사후검증 대비 FTA 과정’ 교육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상의 3층 교육장에서 ‘사후검증 대비 FTA 종합실무과정’을 마련한다.

이번 과정에선 품목 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서 발급 등 FTA 원산지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고, 원산지 사후검증 이론 검토(법률 규정 및 절차),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방안,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도 교육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의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hub.go.kr/incheon)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06/lyun1029@incham.net)로 접수하면 된다.

/김원진 기자 kwi7991@incheonilbo.com

인천신보-10개 군·구 출연금 확대 나서

경제활성화 공동 협력기로

인천신보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출연금 확대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 20일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10개 군·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1:1

1 방식으로 출연하고, 재단의 보증지원율을 높여 각 기관 출연액의 36배를 보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사업은 2003년 남동구청을 시작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10개 군·구에서 43억원을 출연해 8.6배에 달하는 373억원을 약 1600여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로 지원해왔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지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DHL코리아 ‘중기 수출입 지원 세미나’

내달 19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DHL코리아가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10월7일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선 통관, AEO 인증제도, FTA 원산지 검증 및 특허 세율, 인천 게이트웨이 탐방 등 4시간 상당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DHL 중소기업 수출입 활

성화 지원 세미나’는 현재 국제 특송을 통한 수출입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DHL은 이번 사전 신청을 바탕으로 100명의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세미나 무료 참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DHL코리아 마이크로 사이트(www.dhlkorea.com)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한 뒤 9월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9월 24일 개별 공지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인천공항 가이드’ 앱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최우수상

세계 첫 도착승객 정보제공...서비스 극대화

공항 이용객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공항 가이드’가 제14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 가이드’ 앱은 공공기관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고객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선진적인 IT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공항 가이드’는 세계 공항 최초로 도착 승객의 이동 현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영객 맞춤서비스 외에도 3D 실내 길 안내, 편리한 운항편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과 차량 주차 위치 찾기,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한 실시간 공항버스 정보 제공, 쇼핑 정보 안내 등 인천공항 이용 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천공항 가이드 앱은 지난해 ‘인터넷 예코 어워드’와 ‘스마트 앱 어워드’에서 서비스 혁신 부문 대상과 고객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드라마 보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 녹화하세요!

골프중계 즐겨보시는 아버지를 위해 녹화하세요!

교육방송 놓친 내 딸을 위해 녹화하세요!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스마트로 우리가족을 위한 즐거운 녹화!

국내 유일! 240개 전 채널
녹화되는 헬로tv스마트!

- 예약녹화, 동시녹화 등 더욱 다양해진 녹화기능!
-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TV녹화와 티빙시청을!
- 아이가 보는 화면, 집밖에서 차단하고 메시지 전송까지!
- 채널555번에서 가족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감상!

www.cjhellovision.com

“인천시 항공 정책 확대 힘써야

우수 인프라 세계적 수준 관리·물류데이터 구축을”

2015 항만공항해양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

인천연대 사무처장 주문

“여객화물 지속증가 불구
관련 담당직원 2명 불과”

인천시가 항공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데이터를 구축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시는 21일 오후 2시 옹진군청에서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분야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본 예산액 기준)안은 781억5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50억3700만원 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크루즈선 유치 및 활성화 3억원,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10억5800만원, 중소기업 공동 물류 5억5000만원, 물류 데이터 구축 2억원, 여객선 운임 지원 102억6000만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9억9800만원, 유류 수산자원 생산·방류 및 시험연구 5억원,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 3억9300만원 등이다.

이를 근거로 시는 인천항에 동북아 중추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육성 및 정책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 여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자로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항공정책 강화를 시에 주문했다. 이 사무처장은 “평택항이나 부산항 등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고전하고 있는 인천항과 달리 국내에서 다른 경쟁 대상이 없는 인천공항은 여객과 화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 항공 관련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해 관련 정

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신규 사업에 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와 의회,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정책개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정책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대원 성결대학교 교수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이라는 우수한 물류 인프라가 지역에 있지만, 이를 실효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며 “이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지표 등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산의 경우 부산시가 주요 물류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을 열어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며 “인천 역시 활용 가능한 물류 데이터를 구축해 정책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수출입 물동량

인천항 상승세

지난달 각 10·26.7% 늘어

인천항을 통한 수출, 수입 물동량이 모두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통한 7월 수출입 물동량이 693만1000t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5만8000t, 24.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출 물동량은 77만5000t으로 7만7000t(10%), 수입 물동량은 607만9000t으로 128만t(26.7%)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입 물동량은 아시아가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오세아니아주(17.3%), 중동(12.5%), 북미(8.6%), 기타 지역(15.2%) 등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아시아 68만t(26.8%), 오세아니아주 37만6000t(45.9%), 아프리카 31만2000t(226.9%), 북미 24만1000t(67.5%), 중동 11만7000t(12.5%), 유럽 10만7000t(33.5%) 등으로 늘었다. 반면, 중남미는 47만5000t(72.5%)이 줄었다. 국가 별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전체 물동량의 17.3%, 12.1%를 각각 차지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인천인력개발원 ‘명장 아카데미’

명품기술 ‘숙련공’ 배출

명장이 명장을 키운다

분야별 5명 직접 전수

교육과정 개발 운영중

훈련생 큰폭 증가추세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은 숙련공 구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하소연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눈에 띄는 육성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숙련공들이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허락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말만 계속된 2차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선 고급 기술을 지닌 인력이 절실한데, 지역엔 많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 운영 중인 ‘명장 아카데미’는 숙련공을 키우기 위한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명장의 특화된 명품 기술·기능을 계승하기 위해 명장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다시 말해 ‘명장이 명장을 키우는 훈련’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 운영을 한 이후 올해 5명의 분야별 전문 명장과 함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윤환 인천인력개발원장은 명장 아카데미 교육 의도에 맞게 직접 지역의 명장들을 모셨다고 전했다. 박병일 자동차명장과 이대근 금형명장, 서정석 정밀가공명장, 안연환 전기명장, 함영만 통신명장과 손을 잡았다.

그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주문했다. 명장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을 걸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명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는 몇 명 안된다. 1986년부터 25년 동안 총 520명이 선정된 게 고작이다. 매년 20명 꼴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 훈련생들은 명장을 비롯한 현장 전문기술자에게 전문 고급 기술을 직접 전수 받는 특혜를 얻게 된다.

올해 사업이 정착되면서 훈련 과정이나 훈련생이 대폭 늘었다. 2012년 15명으로 시작한 명장 아카데미는 2013년 2개 과정 30명으로 늘어 현재 5개 전문과정 99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명장 아카데미는 지식기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 배출이 목적이다. 단계별로 명장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수여자는 명장 아카데미 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받는 기술(기능)인증서는 명장이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 취업할 때 기술 전수에 대한 증명서로 활용된다.

차별화된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비 명장으로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천인력개발원의 설명이다.

명장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박병일 자동차명장은 “평생을 걸어온 자동차 기술의 경험을 훈련생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다”며 “전문 기능인을 배출하는 게 지역 산업의 발전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7991@incheonilbo.com

하도급 대금 적법 지급 모니터링

인천공항공사 시스템 운영

온라인상 실시간 확인·감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도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천공항공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가져갈 금액만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에 바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시스템으로 그동안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유용하던 관행을 막고, 발주기관이 지급한 대금의 흐름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하도급사·근로자들에게 대금지급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하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와 하도급 관련 사항을 통합해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하도급 정보공개제도도 시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부터 체결된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대금이 최종 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할 수 있게 돼 하도급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미국궤 ‘냉탕’ ...고개속인 코스피

21일 코스피 지수가 미국 미국 초기 금리인상 우려에 반응하며 2,05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8.57p(1.38%) 내린 2,044.21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을 울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제조업 생산·수출 증가...지역경기 회복세

한은 인천본부 6월 실물경제 동향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로 인천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1일 발표한 ‘6월 인천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3% 증가했다. 전달 3.0%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13.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정보(-9.8%) 등의 생산은 줄었지만, 전기장비(45.1%)와 금속가공제품(27.6%)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6월 중 인천지역 수출(통관 기준)도 전년 동월 대비 5.6% 늘었다. 자동차 수출(-25.3%) 등이 감소했으나 철강제품(69.0%)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줄줄 새는 전력 뷰로탭이 지켜보고 있다!

낭비전력! 대기전력!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딱! 딱! 뷰로탭이 잡아 드립니다.

실시간 전력측정 및 모니터링 기능

마이크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알려주는 똑똑한 기능

대기전력 차단 기능

양극차단 개폐소자를 적용, 전기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완벽히 차단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 UP

IR리모콘 ON/OFF 제어기능

IR센서를 통해 어떤 리모콘으로도 ON/OFF 제어가 가능한 편리한 기능

자동절전기능

PC의 화면 보호기와 연동하여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ON/OFF, 절전에 따른 불편함 NO

원격제어기능

사무실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에 관리자가 원격으로 일괄/그룹단위 원격 ON/OFF 가능

저탄소 인공지능 제품 뷰로탭!

전기에너지 10~30% 절약!

전기제품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세요!

인간과 자연, 에너지가 함께 +되는 기업

주식회사 피코스넷

Tel : (031) 216-1764~5 Fax : (031) 216-17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702호



송편 만드는 '결혼이민여성'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1일 남양주 수동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이 열린 가운데 조재록 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결혼이민여성 20여명이 참석, 자신들이 만든 송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사진제공=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의왕역-왕송호수 주변 철도 테마거리 재탄생

‘특구’ 연계 관광상품 차별화...시, 내년 6월까지 조성

의왕역과 왕송호수를 잇는 주변 거리가 철도테마거리로 재탄생해 철도특구 이미지가 부각되는 테마 거리로 변화될 예정이다.

의왕시는 총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왕역 육교와 주변길, 금천천길 양구간, 철도박물관 앞 지하도로 등에 내년 6월까지 의왕 철도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철도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철도특구와 연계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철도문화와 스토리가 어우러진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의왕역 육교와 주변길은 트릭아트와 타일, 부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벽화거리로 조성하고, 금천천길 양쪽 구간은 다양한 식물을 식재한 식물 터널길, 철도박물관 앞 지하도로에는 루미나리에 설치할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4년 제2차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여원을 확보한 만큼 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철도특구로써의 시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는 철도 테마거리 조성과 더불어 철도특구로써 시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왕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철도자원과 왕송호수, 조류생태과학교, 현재 추진중인 레일바이크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개발해 의왕시의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전통주 제조반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까지 전통주 제조기술을 현대적으로 접목시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전통주 제조반 교육'과 관련 교육생을 모집

한다. 전통주 제조반 교육은 내달 3일부터 10월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도점면 주곡리 '산드른 발효체험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누룩빚기, 탁주 등 다양한 전통주를 직접 빚어 볼 수 있다.

/광주-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대형 할인점 가격 공세 영세 소상공인·슈퍼 타격” 부천시 ‘분양취소’ 요구 시의회도 ‘반대’ 결의문 공동 대응 방안 모색도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천 오정물류단지 안에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입점하려 하자 부천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내 대규모 점포·전문

상가용 상류시설용지 14필지 중 한 필지(2만6764㎡)를 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5월과 6월 2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3차 분양공고를 통해 코스트코 코리아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시는 대형 할인점이 단지 내에 들어오게 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슈퍼마켓 운영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 단지 내 2520㎡ 부지에 연면적 1300㎡ 규모의 부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어 지역의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인근에 입점할 경우 상품 품목이 겹치는 도매물류센터와의 가격 경쟁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 예상된다.

김만수 시장은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인근의 영세 상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입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지개발 사업 초기인 2011년에도 코스트코가 입점을 시도했다가 부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입점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부천시의회의 의원 전원도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사업권자인 경기도와 LH, 코스트코 본사 등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반면 LH는 국가 계약법과 내부 규정 에 근거해 코스트 코리아에 토지 분양을 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LH에 코스트

코 필지 분양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시의회, 영세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정물류사업단지 사업은 LH가 2496억원(보상비 포함)을 들여 오정구 오정·삼정동 일대 46만여㎡의 농경지에 수도권 서부 최대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단지에는 점단 물류시설·대규모 점포·전문상가 등 유통·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난 3월 착공해 2016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3100명의 고용창출과 63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부천=이종호 기자 jhlee@incheonilbo.com

제9회 시흥 갯골축제

생태공원서 29-31일

시흥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장곡동 갯골생태공원에서 ‘제9회 시흥 갯골축제’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갯골의 바람, 그대로의 사랑’을 주제로 ▲삼목어(三目魚) 퍼레이드 ▲꼭두쇠 공연 ▲해수품장 물놀이 ▲갈대 천연염색 ▲어쿠스틱 음악제 ▲갯골길 걷기 등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차돌리기 ▲소금 웰빙점진 ▲소금 창의놀이대 ▲갈대소원인형 만들기 ▲갈대피리불기 등 체험행사와 극단 기린의 ‘연풍연화’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갯골축제 홈페이지(w ww.sg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시흥=김신성 기자 sskim@incheonilbo.com

이천쌀문화축제 난전 참가자 모집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22일부터 5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리는 ‘제16회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에 함께 참여할 난전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풍년은 나누고~ 행복은 쌓이고~’라는 주제로 개최할 제16회 이천쌀문화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천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9월1일부터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9월26일 이후 선정된 농가 및 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성남 취업률 2년 연속 도내 1위 달성

대규모 채용박람회 등 구직서비스 강화 영향

성남시가 2년 연속 경기도 내 1위 취업률을 달성했다.

21일 시와 고용노동부 워크넷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남시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자 1만7648명 가운데 51%인 9024명의 시민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직 등록자 8860명 중 4289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47%(4755명) 증가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50~60대의 취업 성공률이 높아 9024명 취업자 가운데 68%(6162명)를 차지했다.

이는 시가 올 상반기 동안 대규모 채용박람회 2차례 개최, 일자리 구하는 날(19데이) 3차례 개최, 고용·복지 모아 상담실 운영, 35개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배치·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남시일자리센터, 수정·분당·중원구청 취업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관계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구인·구

직 상담과 알선, 지역 맞춤형 사업(컨택 산업) 지원,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전문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도 큰 몫을 했다.

한편 성남시는 단일팀 구조인 일자리

센터를 내년도부터 구인개발·구직상담·알선·취업교육 등 3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일자리를 찾는 모든 시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한다.

/성남=허천희 기자 hurchi@incheonilbo.com



지난 1-7월까지 성남시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과천시 청소년 축제 24일 개최

과천시는 24일 오후 3~8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야외마당에서 ‘2014 과천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2014 과천시 청소년 축제 ‘Feeling&Healing’은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40명의 청소년들이 직

접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과천시의 대표 청소년 축제다.

이날 이뤄지는 축제엔 라이머, 햅타등 4개팀의 밴드공연과 피타, step등 총 7개팀이 참가, 댄스공연, Rapture팀의 연극 공연, 가온누리팀의 사물놀이등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며 또한, 홍익대학교 흑인음악동아리 ‘Brainswords’팀 등

총 3개팀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아로마 향초 만들기, 물풍선 던지기, 초콜렛 풍류, 전통 팔찌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 네이버, 다음(daum) 검색 창에 인천N방송을 검색하세요

지역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각종 기자회견, 설명회 등을 실시간으로 본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인천N방송에 접속하면 궁금한 오늘의 지역뉴스를 주요 언론사 지면보기로 가능합니다.

※ 인천N방송에서 해당 언론사의 배너를 클릭하면 오늘의 화제뉴스 바로 확인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뉴스
보기

전문기자의
현장뉴스 시청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부터 관광, 행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남인천방송 내
인천N방송 프로그램
(열린채널N) 시청 가능

대학 방송학과
작품 등 고품질
영상 시청

▶ 인천N방송 참여 방법

■ 웹사이트 : www.incheonNtv.com

■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천N방송]앱 검색

※ 서비스문의 : (032)250-2146~7



QR코드로 인천N방송 바로 접속

김포 시도 5호선 연장 10년만에 재개

재두루미 보호관련 환경협 입장변화·홍도평야 용도변경 등 영향

연말 환경 대책·설계 마무리...내년 토지 보상·2016년 착공 계획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 중단됐던 김포시 보건소(사우동) 앞에서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 연장공사가 10여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시도 5호선 연장공사'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의대상으로 축소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집의를 통해 최근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화신에 따라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보건소 앞에서 48번 국도 우회도로(교차로 연결)를 거쳐 한강로와 연결하려던 계획을 우회도로 연결없이 바로 보건소에서 한강로(시내폴리스 IC)를 잇는 안으로 2004년 끝낸 실시시설계영역을 바탕 삼아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새 취식지 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환경영향대처를 마무리한 뒤, 내년 토지보상에 이어 2016년 첫 삽을 뜰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총 370여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이 사업

은 총 연장 1.2km의 4차선 도로연장공사로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 48호선과 한강로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이 도로는 사우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김포시청-홍도평야-한강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계획돼 한강환경유역청의 재두루미 취식지 보호를 위한 홍도평야 구간에 대한 환경협의 반대로 2000년 사우단지 준공과 함께 보건소 앞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시는 2004년 실시시설계영역을 완료하고 2005년 다시 환경협의에 나섰지

만 이때에도 홍도평야의 생태보호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협의가 불발됐다. 이어 2007년 재협의 과정에서 환경성검토영역을 다시 의뢰할 경우 공사재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변화에 따라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구역에 착수하면서 공사재개가 접착졌지만 사업효과 불투명하고 시내폴리스 조성사업 환경협의로 순위가 밀리면서 반쪽짜리 도로 신세를 면치 못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말 홍도평야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꼬였던 실타래를 풀게 됐다"며 "당초 계획됐던 우회도로 접속로는 시도 1호선과 연결토록 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비가 와도 활활...안성, 인천 AG 성화봉송

21일 안성시 내해를 광장에서 안성시청 근처 마트까지 모두 9개 구간(1.5km)으로 황은성 시장이 첫 주주자로 나서 시민들과 성화를 들고 달리고 있다. 이날 성화봉송은 김학용 국회의원, 유광철 시장, 기업인 대표, 다문화가족 주부 등 9명의 주주자와 36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부주자로 참여해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사진제공-안성시

용인 역북지구 단독주택용지 매각 호조

LTV·DTI 규제완화 여파 7-8월 거래 급증...분양률 88% 달성

용인도시공사가 처인구 역북동(명지대 앞)에 조성 중인 역북도시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 중심으로 매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역북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 매각이 늘어난 것은 LTV,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단독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80% 상승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총 80필지로 2011년 분양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33필지로 분양률 41%만 분

양됐으나 7-8월 사이에 분양계약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70필지가 분양돼 분양률 88%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률 급증에 대한 요인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기존 47가구의 허용가구수를 10가구로 증가하면서 해당지구의 투자수익률이 확보된 것이 주 요인이다.

또 공사의 홍보 마케팅과 기존 분양자들의 건축에 따른 시각적 홍보효과와 수익성에 대한 믿음이 분양 촉진으로 이어져 그동안 저평가됐던 역북지구가 재평가 계기가 되면서 나머지 필지도 올해 안으로 상당수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요인은 해당지구 입지조건이 시장 수요에 부응한것으로 분석된다.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지어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매수자들이 명지대, 용인대 등이 위치해 수요가 확보된 이 지역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선 환승이 가능한 명지대역과 광역버스 기점이 있어 통근 등 뛰어난 교통 환경과 함께 종합상가가 조성되고 경찰서, 소방서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면에서도 우수하며 녹지확보도 충실히 쾌적한 거주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용인-허한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파주 교하지구 주민 경의선 이용편의 ↑

그동안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이 경의선 등을 이용할때 가까운 거리를 두고 수 km를 우회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운영3지구 내부도로인 '책향기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올해 8월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책향기로는 교하지구(석곶초등학교)-운영지구(산내마을3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0.6km(4~6차로)의 도로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파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책향기로 도로의 순기능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LH에 책향기로의 조기착공을 요청해 왔고, 지난 18일에는 이재홍 파주시장이 직접 LH 사장(이재영)에게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내부도로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

내년 5월 준공...수km우회 불편 해소

책향기로의 조기개통 전망에 따라 그동안 교하지구에서 운영1·2지구로 이동하려면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1호선을 이용해 4~5km를 우회했지만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을 보인다.

또 교하-운영간 직접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2자유로를 이용한 출퇴근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4~12세 빠트린 예방접종 꼭 하세요”

양평군보건소, 감염병 사전차단·완료 당부

양평군보건소는 21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시기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 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만 6~7세) 학생의 경우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한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빠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 초등학교 5~6학년(만 11~12세) 학

생은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 간 학생의 경우도 빠진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제 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개학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수두 등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을 막기 위해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양평-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인천일보 기사는 **Dm** 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천 자동차(중고차)의 모든것

CAR LAND 카랜드

경험보다 위대한 승승은 없다.
중고차 할부의 마지막 자존심,
고객님의 자동차 고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안되는게 없다!
저신용자, 7등급미만(8등급~) 무조건 무조건이야!
중고차 판매·매입에서 **수리까지! 허위매물 NO!**

사 장 : 김중구 H.P : 010-8916-8919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타워S-45호

등록번호 : 137-13-44805

그림같은 숲속의집!

인천 물림병이

전품목 포장가능!

- 이구찜
- 이구탕
- 해물찜
- 박지덮밥
- 팬댕이희덮밥
- 올메기탕
- 돈까스

마직도 뽕현중에 가십니까?

패적인 환경, 넓고 편리한 주차공간!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겨 보세요!

주차100대 가능/족구장 완비

단체예약 환영

032) 433-9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95-3



강옥영의 '인천 역사 원류'를 찾아서

〈3〉 지명에 담긴 인천 정체성-미추홀에서 인천까지

역사따라 변천...당시 삶 고스란히

인천의 이름은 비류의 미추홀(彌鄒忽)로부터 출발하여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매소홀(買召忽), 소성현(邵城縣), 경원군(慶源郡), 인주(仁州), 그리고 조선 태종 13년(1413) 10월15일에 이르러 인천군으로 불려졌다. 지명은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당시의 삶을 살피볼 수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의 정체성이자 역사라 할 것이다.

▲바다를 품은 바닷고을, 미추홀 2030년

〈삼국사기〉백제의 건국설화에 의하면, 비류(沸流)와 온조(溫祚)형제가 고구려로부터 남하하여 온조는 한강유역의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비류는 미추홀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 하였다.

미추홀(彌鄒忽)은 백제 초기 인천의 명칭으로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미추홀국, 미추국, 비류국 등으로 일컬어졌다.



문학산성.

▲문학산성

미추홀이 순우리말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추홀과 매소홀은 같은 뜻을 가진 토박이말로 추측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매'는 '물(水)'로, '홀'은 '고을(城國)'로 해석하여 '수성(水城)'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매'를 '거칠다(野)'는 뜻으로 봐서 '거친 들'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미추홀을 한자의 훈을 따서 붙인 이두식 표현으로 보아 '밀골' 또는 '바탕골'로 해석하여 비류백제의 수도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비류의 미추홀 정착으로 출발한 인천은 고구려의 남하정책 이후 '매소홀'로 그 명칭이 바뀌어, 신라가 668년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계속 매소홀로 불리어 오다가 경덕왕 16년(757)

에 '소성현'으로 개칭되었다. 소성의 소(邵)는 '고을 이름' 혹은 '높다', '거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문학산성을 상징했거나 도읍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대어향(御鄉), 경사의 원천

소성현으로 불리던 인천이 고려 숙종대(1095~1105) 경원군으로 승격·개칭되었는데 그것은 숙종의 어머니인 인예태후이씨(仁慈太后李氏)의 내향이었기 때문이다.

인예태후는 인주이씨의 시조 이허겸(李許謙)의 증손자인 이자연(李資淵)의 만팔로서 문종의 왕비가 되었는데, 문종과의 사이에서 10왕자와 4공주를 낳았다. 그 중에는 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義天)도 있었고, 후에 순종·선종·숙종 등 3명은 왕이 되었다. 숙종은 어머니의 고향이 경사의 근원이라고 하여 경사 '경(慶)'과, 근원 '원(源)'을 써서 경원군으로 승격·개칭하였다.



원인재.

▲원인재

인종대(1122~1146)에 인천은 군에서 주(州)로 승격되면서 명칭을 '인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기도 했던 이자겸은 인종을 폐하고 왕이 되고자 1126년에 반란(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 난이 실패함으로써 인주이씨는 몰락하고 말았다.

인전은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다시 경원부로 환원·승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천이 칠대어향(七代御鄉)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조상을 현양하는 의미에서 고을의 규모를 부(府)로 승격시켜 쇠락해가는 고려 왕실을 높이려는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인천 정명(定名) 600년

조선이 건국되자 인천은 다시 인주로 환원되었고, 지금의 '인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태종 13년(1413) 10월15일의 일이었다.

태종은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의 인구나 생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격에 맞게 '주(州)'자가 들어 있는 고을은 주자 대신 '산(山)'자나 '천(川)'자로 고치게 했다.

이에 따라 인주는 '인천군'으로 개칭되어 비로소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대 지방제도의 정비는 인천만의 경우는 아니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정된 곳이 모두 59곳으로 나타나는데, 인천처럼 '川'자로 바뀐 곳이 36곳, '山'자로 바뀐 곳이 23곳이었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5곳이 개편되는데 모두 '川'자로 바뀌었다. 지금의 과천(과주), 포천(포주), 연천(연주), 시흥(금주) 그리고 인천(인주)이었다.

'인천' 지명 탄생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인천광역시'의 발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괄목(刮目)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명, 또 다른 역사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0개의 군구가 있고, 그 지명들에도 오랜 역사가 깃들여 있다.

갑비고차라 불렸던 강화는 고려 태조때(940)와서 '강화현'으로 개칭되어 지명 탄생은 1000년이 넘었다. 부평의 경우도 고구려 때 주부토군, 신라 경덕왕때 장제군으로 불리다가 고려 시대에 수주(940), 안남도호부(1150), 계양도호부(1215), 길주목(1308)으로, 그리고 1310년(충선왕 2) 부평부로 개칭되었으니 기산하면 700년이 된다.

계양 역시 고려 고종 2년인 1215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2015년이면 800년이 된다.

중요한 것은 각 군구의 지명이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졌음에도 지금은 '인천광역시' 역사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신산(辛酸)의 고통을 이겨내며 성장·발전해 온 개척지 인천의 또 다른 내일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이명태의 한시로 읽는 인천 옛 모습

■ 인천팔경과 팔경시(八景詩) - <강화십경>의 연미조범

제비꼬리 물줄기 형세 '연미정' 조운선 행렬 장관 생동감 넘쳐



연미정의 모습. <신편 강화사>(2003)

응시 대상이 단수이나 복수에 나에 따라 응시자의 시선은 고정되거나 확장되기 마련이다. 전자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경우이고, 후자는 나무 몇 그루를 동시에 보는 경우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동영상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응시자가 느끼는 감동은 증폭된다.

'연미정의 조운선'이라 하는 연미조범(燕尾漕帆)이 이에 해당한다. '연미정에서 조운선의 행렬을 바라보기'라 풀이할 수 있는데 정자가 위치한 공간의 특성과 그곳에서 바라보는 조운선의 행렬이 <강화십경>의 여섯 번째이다.

이에 대해 고재형(高在亨·1846~1916)이 시를 지었다.

燕尾亭高二水中
연미정은 두 강물 사이에 우뚝하고
三南漕路檻前通
삼남의 조운 길은 난간 앞으로 지나가네
浮浮千帆今何在
떠다니던 그 많은 배 지금은 어디 있나
想是我朝漕古風
想是我朝漕古風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순후한 풍속이었는데

한강이 남쪽으로 갑곶나루로 흘러가고 서쪽으로는 승천포로 흘러가는 중심에 연미정(燕尾亭)이 자리 잡고 있다. 물줄기가 나뉘어 흐르는 형세가 제비꼬리를 연상하기에 연미정이라 지칭했다.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방이 훤히 트였기에 "빛장처럼 한양을 보호하고 적을 막아내는 형세가 이 연미정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며 강화 유수 김로진이 기문(記文)을 남기기도 했다. <심도지>의 누정편에 따르면 "강화에서 으뜸가는 명승(蓋池中第一名勝云)"으로 기록돼 있다. 이른바 경치 감상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던 장소였다.

세곡(稅穀)을 실은 조운선은 그 앞을 지나 마포로 향해야 했다. 대평한 시절에 세곡선이 줄지어 가는 광경을 연미정에서 감상했다면 절경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재형이 그곳을 답사하던 때는 대한제국이었기에 '그 많은 배 지금은 어디 있나' 하며 순후한 풍속이 지속되던 시기가 아닌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舟泊燕尾亭 연미정에 배를 대고
暮向江村宿 저물녘 강촌에 유숙했네
風雨暗前郊 비바람에 앞 들녘은 어둑한데
誰家新酒熟 새로 담근 술 어느집에서 익었을까

둔암(菴菴) 송연(宋淵·?~?)의 <연미정에 배를 대다 <舟泊燕尾亭>라는 한시이다. 어둑과 비바람이 노정(路程)을 막았지만 작자의 심사가 불편한 것은 아니다. 연미정에서 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석주(石洲) 권필(權鵬·1569~1612)이 세운 반환정(盤桓亭)이 있는데, 그 곳에는 술과 시를 매개로 자신과 공유했던 권필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루쯤 지연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어느 집(誰家)'은 새 술을 빚어놓고 작자를 기다리고 있던 권필의 집이었을 것이다.

연미정은 고려 고종 19년 강화 천도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중종 때의 명장(名將) 황형(黃衡·1459~1520)의 집터로 알려지기도 했다. 여러 차례 증수됐는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으로 최초로 근대정미업소를 세웠고 동산중·고교의 설립 및 학장에 도움을 주었던 유군성(劉君星·1880~1947)이 1931년에 보수했다는 점이다.

"고향을 내가 감히 잊을 수는 없으며,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무너짐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것이다. 하물며 연미정은 강화도의 눈썹과 눈이고 원호는 명승지이며.. 옛 건물을 보존하는 일은 한 마을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응당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짐짓 이것을 기록하여 고향 어린이들이 힘쓰기를 당부하노라."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인천항의 정미업계에서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던 유군성이 연미정 보수에 섰듯 나섰다. 지금의 행정구역에 기대면, 인천 중구에서 치부하여 그것을 강화 문화재 보수에 사용했던 것이다.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

300soft.co.kr

아직도

대리를 모르세요?



으로 돈 챙기고
음주운전 버립니다!

300

어떻게 설치하지?

Play 스토어에서 '삼백소프트' 로 검색하고 설치해서,
'추천번호' 에 01073112951 등록하면 끝~!

300

대리운전을 부르는 3가지 이유

첫째 부르기가 너무 쉽다.

어플을 실행하고 **GPS 요청** 을 누르면 끝!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네~!

둘째 부르면 돈이 된다.

어플을 이용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면!
이용금액의 10~12%가 바로 캐시 백!

셋째 알려도 돈이 된다.

너무 좋은 어플이라 친구를 초대하니,
친구가 **300** 을 이용할 때마다 4%가 또 캐시 백!

문의전화 : 1899-5337

300

(주)삼백소프트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유정복시장 은 취임사에서 “인천발전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감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도 선도해나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인천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둘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셋째, 인천이 살아나려면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 네 번째로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며 다섯째로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시장의 300만 인천시민만을 위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 쏟아내는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임기 내내 꼭 지킬 것을 기대한다.

유정복시장당선자의 공약 중에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인천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행정 시스템을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라 예산의 3할이 복지예산이고, 시·도 예산의 약 3할이 복지예산이며, 구청 예산의 50% 가량이 복지예산인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소수이기에 대부분

나눔의 삶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복지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의 상당수는 진짜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복지적인 것’에 쓰일 뿐이다. 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군·구에 복지정책을 기획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시청의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중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는 시청과 구청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지위(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전달체

계를 개편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지는 정책과 함께 관리·감독 또한 중요하다. 인천시에는 복지기획 전담공무원이 없어 안타깝다. 교육과 복지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니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복지기획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의 3할 이상을 복지로 쓰는데, 복지행정을 시행정의 중심에 두고 책임성있는 복지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천광역시 복지행정의 기획력을 혁신해야 하며 복지기획업무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켜서 소신껏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편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감사원은 감사직, 경제와 관련해서는 모피아라고 불리는 재정직, 법원은 법원서기보, 검찰은 검찰사무직으로 채용한다.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은 주로 핵심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직제와 인력배치에 업무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획실에는 대부분이 행정직공무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전문성의 증대와 감소가 일어나고, 표를 의식한 어떠한 행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구축과 함께 행정 시스템을 복지중심으로 바꾸어 유정복시장의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은 복지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 인 복지 정책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가 최우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코 앞에 두고 인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입장권 구매에 냉소적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인천시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지역 기업들을 외면해 오다가 정작 대회를 앞두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빈정이 상한 모양이다. 한 예로 지역 인쇄광고 업체 대표는 “아시안게임 특수를 기대 했는데 막상 서울이나 다른지역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소외감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조직위 등에서 지역업체에 어드벤티지를 주지 않았다는 불만 소리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입 요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지만 영 입맛이 당기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먼저 해준 것도 없이 손만 내미는 행태에 대한 꾸짖이다.

이렇게 지역 중소기업들이 서운해 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인천시와 조직위원회 책임이 크다. 평소 닭보듯 하다가 무슨 때가 되면 손을 벌리는 행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쾌 할 리 없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어려운 경제사정에 내심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를

기대 했던 지역 업체들은 ‘원칙’만을 고집하는 관공서에 서운함이 많았을게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혀 보자.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 역사 이래 최대의 축제다. 이를 통해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 난다면 이는 고스란히 지역 이익으로 돌아온다. 때마침 정부가 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에 팔을 걷어 부쳤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앙 부처에 56억원여치의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천으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일부 금융권 회사는 수익원의 입장권을 이미 샀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입장권 구입에 적극 나서기로 인천시와 약속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설명 대회 준비 과정에서 복잡함이 있더라도 일단은 잔치를 훌륭히 치르고 볼 일 이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조우성의 미추홀 (1215)

황병식 선생

선생의 그림을 대하면 언제나 안온해진다. 안온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 선과 색채의 환타지는 언제나 자연이다. 황혼의 갯벌, 물결치는 바다와 같은 자연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또 하나의 인간적 진실인 ‘내면 속의 자연’이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보는 선생의 시각은 인체의 숨겨진 하나까지를 그대로 그려내는 극사실주의와는 다르다. 사물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이념의 과잉이거나 현실적 이해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망치가 되거나 낫이 되는 혁명도 꿈꾸지 않는다. ▶“예술이란 사람의 마음 깊숙이 빛을 주는 것이고, 화가란 모든 것을 뜻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술은 유행이 아니다. 서커스나 쇼도 아니다. 오로지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진실을 표출하는 수단이다” 이 같은 지론은 ‘과장되지 않은 색조와 경감한 필치’로 나타난다. ▶그것은 유년기에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건너간 후 겪었던 순탄치 못한 학창시절과 사랑하는 애인과 화구(畫具)를 잃었던

상실의 시기, 연옥 같은 6·25전쟁 등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목도하게 된 한 ‘인간 진실’에 의해 갖게 된 예술적 자제였다고 이해된다. ▶김홍수 화백은 선생의 작품을 “구질구질한 세밀 묘사에 얽매이지 않고 날찍날찍한 색면 추구로 조형성을 의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장이나 왜곡으로 사물을 일그러뜨리지도 않는다. 술잔으로 조금씩 목을 축이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켜 준다”고 했다. ▶선생과 예술은 그렇듯 하나였다. 제물포고 미술 교사를 하다가 정년을 앞둔 어느 날 홀연히 전업 작가의 길에 나섰던 것도 시대적 고난과 개인적 불운 속에서 ‘인생을 허비해 왔다’는 자성을 하며 내린 결단이었고, ‘완도’ 귀향 후에도 붓을 놓지 않고 예술혼을 불태웠던 선생이셨다. ▶그제, 선생의 부음을 전해 들었다. 향년 88세. 연전에 가 보았던 완도 화실 앞에 아득히 펼쳐져 있던 갯벌이 더불어 떠오른다. 참, 아득했다. 인생이 그렇다.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선생의 그 융융한 정신세계와 작품은 길이 기억되리라 믿는다. /주필

오늘의 소사

▶용동에배당 고종황제 탄신경축예배 <1897> ▶천리교 인천선교소 설치인가 <1912> ▶인천민병대 임대식 <1953> ▶인천제일교회 준공 <1974> ▶주안파출소 낙성 <1975> ▶인하대 제3회 태평양연안 J배구 우승 <1976> ▶종합아시장앞 도로포장 끝내 <1976> ▶계양출장소 청사 준공 <1989> ▶미국 아카펠라합창단 인천연주 <1990> ▶제2대 인천시교육위원 9명 선출 <1995> /자료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천일보 안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032)4520-114

www.incheonilbo.com

SK인천석유화학, 신뢰쌓기 올인을

SK인천석유화학이 연일 시끄럽다. 인천시의회가 급기야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에서는 공장 증설 적정성을 따지는 한편 사고 방지대책, 환경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지역 36개 사회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SK인천석유화학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왔다. 지난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공장증설이 시작되면서다.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우여곡절 끝에 연간 5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내내 바람 잘 날 없었다. 증설된 공장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에서는 불기둥이 밤 시간에 인근 주택가까지 밝힐 정도로 흰치 치솟아 주민들의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또 불기둥과 함께 타는 듯 한 냄새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여기에 나프

타 저장탱크에서는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또 다른 논란거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사 스스로가 키운 셈이다. 공장증설 시작부터 ‘쉬쉬’하기 바빴고, 주민들의 격정에도 사업장 관리는 허술했다.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말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제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처음 시설이 들어설 때와 달리 주변지역은 천지개벽 중이다.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서 기업을 놓치는 것 역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당 할 수밖에 없다. 이제, SK인천석유화학에 던져진 과제는 하나다. 바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 뿐이다.

Visual Design & Story

“고객과의 소중한 커뮤니케이션”
이야기가 있는 진실된 크리에이티브로 최상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주)이너스는 전달하고자 하는 명쾌한 이야기와 목적을 담아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귀하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226(인천일보 3층) Tel. 032-4520-170

(주)이너스의 서비스를 통하여 디자인에서 인쇄까지의 프로세스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Design Service

- 기업브로슈어
- 카탈로그
- 사외보
- 에뉴얼리포트
- 사사
- 단행본
- 광고기획
- 포스터
- 편집디자인
- CI & BI

Printing Service

- 캘린더 제작
- 다이어리 제작
- 서식류 제작
- 배너
- POP
- 읍셋인쇄
- 윤전인쇄



배곧신도시 시민참여 공원조성 협약

김윤식 시흥시장과 전영우 (생생명의숲국민운동 전영우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배곧신도시 배곧생명공원을 비롯, 녹지 124만 ㎡에 2만여주 규모의 시민참여숲 조성을 위한 '배곧신도시 시민참여 공원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배곧신도시 공원과 녹지를 민·관·산의 참여에 의해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 시와 (생생명의숲은 동분부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흥=김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여주시 -한전 변전소 설치관련 면담

여주시는 한국전력의 면담요청에 따라 21일 시장실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한국전력 765kV건설실 황정일 처장 외 관계자 3명과, 여주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신경기변전소 설치 및 송전선로 통과 등 시설 입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 11·12일 양평군수, 광주시장의 서울 본사 방문과 관련 한전에서 본사업의 추진당사자로서 직접 지자체에 방문한 것으로 지난 19일 이천에 이어 이날 여주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경희 시장은 여주에 2개소가 지정된 것에 대한 금사, 산북 주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을 전달했다.

/여주=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경북대 세무회계과 전국대회 수상

경북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들이 최근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전국회계·세무경진대회'에 참가해 재학생 9명이 개인 특별상과 단체 특별상 등을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기업회계분야 이단비·박현아·김태운·김성연·임성민씨가 단체 특별상(정호준·국회의원상)을, 김희경·김태운·김성연씨는 개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무회계분야는 김성연·강기석씨가 각각 개인특별상(설훈·국회의원상, 대한경영교육회장상)을, 엄창성·하성호·이단비·강기석·김성연씨가 단체 특별상(서울강북경영기술사회장상)을 받았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안산시건강가정센터 차량 기증받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영혜)는 여성가족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여성가족지원시설 차량기증을 받아 안산시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약가족·조손가족·위기가족·미혼모가족·세월호 피해가족 등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성가족지원시설 차량 기증' 사업은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07년 생명보험사의 자원 출연으로 시작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경기 포커스 삼성전자

“휴가 반납하고 봉사활동 왔어요”

브라질·베트남 등 IT교육 ...2010년부터 임직원 1000명 참여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여름휴가 대신 해외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삼성전자 임직원들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브라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서 순차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브라질 마나우스로 떠난 30여명의 봉사단은 현재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는 2010년부터 매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 1주일간 해외 봉사를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총 1000여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삼성전자 임직원 150명, 대학생봉사단 30명 등 총 200여명이 각 국가에서 이라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실 구축 등의 수습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IT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임직원 해외봉사는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프로젝트 봉사단'을 구성해 파견 전부터 방문하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브라질의 경우 전기가 부족한 아마존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또 밀림의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감염률도 높은 상황을 고려해 해충퇴치용



지난 16-24일 브라질 마나우스 투루로 봉사활동을 떠난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단원들이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LED 광원을 사용하고 전선지 없이 흔들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LED 랜턴을 개발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농촌가정에서 조리 시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화재위험이 있으며 열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연로로 사용되는 나무를 활용해 높은 온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일명 '로켓스토브'를 개발해 조리를 기존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잦은 정전과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많다는 것에서 착안해 전기를 축적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자전거 형태의 자가발전 운동기구

를 개발했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IT에 특화된 대학교인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개발 실습 수업을 실시하고, 현지 요청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모바일 트렌드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기술과 임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현지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화 기자 times21@incheonilbo.com

김동완, 위안부 할머니 꾸준한 선행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 중인 신화의 김동완(35·사진)이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21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동완은 지난 20일 오후 생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추모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김동완은 “아픈 역사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앞서 김동완은 지난해 2월에도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초대형 태풍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을 위해 3000만원을 내었고 이보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1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한편 김동완은 지난 2011년 노인 관련 나눔을 실천한 선행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이달의 나눔인’에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광주=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동두천署 안심경보기 무료 설치

동두천경찰서 소속 생연파출소가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빈집털이 절도범 퇴치를 위해 ‘스마트 안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 안심 경보기’는 절도범이 창문을 열거나 출입문을 따고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112신고 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면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 절도범 범치행위를 포기하고 도주하게 하는 경보장치이다.

특히 생연파출소 지역내 일반주택이 많아 파출소장이 직접 범치환경 취약지역을 일일이 점검해 절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가구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해주고 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55@incheonilbo.com



과천署 고교생 학교폭력예방 공연

과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20일 과천고교 강당에서 이 학교 1·2학년 학생 640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단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 앞서 이 서장은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한 과천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당부하고 모교출신인 김신욱 축구선수를 예를 들며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학업에 정진하다 보면 10년 뒤 자신에게 더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며 미래의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홍보단의 학교폭력 사례극과 뮤지컬, 마술쇼, 비보이 댄스도 진행했으며 특히, 학교폭력 사례극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왕따나 따돌림, 욕설 등 실제 상황에 맞게 배역을 정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을 진지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인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유재명 △제2부원장 송환빈 △해양기반연구본부장 김석현 △응용기술연구본부장 서승남 △특성화연구본부장 정갑식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장 김철호 △인력양성·교육운영본부장 김봉태 △남해연구소장 최진우 △남해연구소장 명경규

생활고 비관 자살기도자 무사 구조

안양동안경찰서 이창주 경사·김우현 경장

안양동안경찰서 경찰관이 생활고를 비판, 자살을 기도한 5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동안서 갈산지구대 이창주(오른쪽) 경사와 김우현 경장은 지난 17일 오후 7시쯤 “호계동 공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남성이 있다”는 112신고전화를 받았다.

이 경사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공원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숲속에서 목에 줄을 걸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이모(55)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이 씨의 다리를 위로 올려 목에 묶인 줄을 풀어 가까스로 구조한 뒤 출동한 119구조대에 넘겨 이 씨는 인근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씨는 자살예방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소중한 생명을 구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의 말을 전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개발도상국에 선진 농업기술 노하우 전수

한경대, 외국인 연수생 국제농업 특화교육

“한국에서 몽골 축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요!”

몽골에서 온 간혹스(29·국립가축유전자원센터)씨는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선진농업기술을 적용해 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그는 현재 한경대학교 대학원 KOICA 석사과정(4기)을 밟고 있다.

국립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은 지난 8월부터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20개국에서 온 20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국제농업농촌개발 석사과정을 진행해왔다.

이번이 4기째인 KOICA 석사과정은 국제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특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돕고 친 한국적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생 대부분은 각국의 농업·농촌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또는 연구소 연구원이다.

연수생들은 농촌계획 및 개발론, 국제개발협력론, 통계·연구방법론, 농업경영론 등을 공통으로 배우고 각자의 전공 및 관심분야에 따라 농업자원관리론, 축산식품공학특론, 농업정책론, 국제갈등관리와 협상 등을 선택적으로 듣는다. 또 현장실습, 산업시찰, 한국문화체험, 멘토-멘티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스토티나(33·농림수산부)씨는 “강의실에



서 듣는 수업도 유익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농사도 지어보는 게 배우는 것도 더 많고 흥미로워서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대 KOICA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기수 반장을 맡은 방글라데시의 란잔(46·국립농촌개발원)씨는 “한경대는 우리에게 훌륭한 학습 환경을 제공했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흡족해했다.

한편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총 79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교육했다. 졸업생 중에는 자국 농업발전에 기여해 요직으로 승진한 경우도 다수 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imsa@incheonilbo.com

仁&人

김호병·김희병-박누리·박누가 형제해병 백령도 흑룡부대

한핏줄 한마음... “국방수호 이상無”

모범적 군생활 타병사 귀감...AG 봉송주자 영광도

“소초원 모두 가족처럼...전우애로 더욱 노력할 것”

지난 14일, 인천 아시아게임 성화봉송 주자로서 나서기도 했다.

또 다른 형제 장병인 박누가 일병은 입대 전 백령도에 근무하는 형 누리 해병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해병대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박 일병은 “입대 전 형을 면회할 당시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자신있게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백령도와 해병대의 매력에 빠졌다”며 “형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누리 병장은 “자칫 형제가 함께 근무하면 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내가 먼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



①김호병 병장(좌)·희병 일병(우) 형제는 생활반은 물론 훈련과 작전현장에서도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형 박누리 병장(우)이 동생 박누가 일병(좌)에게 경계작전간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다.

/사진제공=흑룡부대

는 말로 형제가 함께 근무하는 소감을 밝혔다.

4인의 형제 해병은 한 목소리로 “우리 뿐만 아니라 소초원 모두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전우들도 서로 다독이며

근무하는 이들 형제들을 바라보며, 다른 전우를 형제처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형제들의 동반근무가 소초 단결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매립공 대테러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4 유치연습기간중인 20일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적의 테러 및 평시 화재발생에 대비 민관군 합동 실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공사 직원과 서부소방서, 지역내 군부대 등이 참여해 아시아 게임기간중 적의 테러 및 화재에 대비, 골든타임 확보 및 초동대처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에는 매립지 견학에 나선 수원 속지초교 60여명의 학생들이 참관한 뒤 훈련 후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향하기도 했다.

/문학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내달 13일 ‘인천 남동문화예술제’ 개막

구민 참여형 문화예술축제인 ‘제2회 인천 남동문화예술제’가 다음달 13일 인천대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남동구가 주최하고 남동문화원·남동구문화예술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인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해 각종 공연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서예 실력도 뽐낼 수 있는 대회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생과 일반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글짓기·서예회화 대회는 사진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에서 접수 하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작품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전원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남동구 풍물단 갈매이 공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구 문화예술인회의 국악공연, 서화 시화 작품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 체험 부스가 마련돼 책 만들기, 도자기 체험, 가운 써주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32-468-1712, 032-468-2580

/구자영 기자 ku80@incheonilbo.com

건강관리·식사대접...어르신 웃음꽃 활짝



웅진군은 지난 19~20일 백령면 경로당 2곳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펼쳤다.

군은 이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밴드를 이용한 건강 체조와 발 마사지 프로그램을 열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군이 매년 시행하는 것이다.

7개면 60여곳의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게이트볼·노래 교실,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져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smile@incheonilbo.com



서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심영수)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구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 자장면 무료대접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용철 서부경찰서장, 심영수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경찰관과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이 지역 노인 6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자장면 행사장에는 서구치매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한국노인복지센터와 한국성경교회에서 무료로 차 대접을 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어르신들의 즐거움 자리가 됐다.

심영수 경찰발전위원장은 “보잘 것 없지만 맛있는 드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부경찰서와 함께 서구 치안이 안정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학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나눔선봉 기업’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든다

신세계백 인천점 지역발전기금 쾌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1일 인천시에 지역발전기금 3억1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재영 신세계 대표,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 조건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주영수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매년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1500여만원이 늘어난 3억1000여만원을 내놨다. 첫 해인 지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신세계 인천점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은 총 33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준성 시장은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에



술, 사회복지부문 등에 지역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신세계는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총 기자 airin@incheonilbo.com

AG성공기원 강화 나들길 이어가기 행사

(새강화나들길(이사장 남궁호삼)은 오는 23일과 24일, 30일과 31일 4일동안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인천아시아게임 성공기원 나들길 이어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45개국 1만3000여명 선수들의 대회기간

안녕과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23일(토) 1코스 심도역사 문화길, 24일(일) 2코스 호국동대길, 30일(토) 5코스 고비고개길, 31일(일) 9코스 교통도다들길 등 4개 코스에서 진행되며 동호인, 학교, 회사 단체, 다문화가족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강화 거주 학생에게는 4시간의 자원봉사인증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새강화나들길 홈페이지(www.nadeulgil.org) 참조하면 된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

희망풍차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회장 황규철)는 21일 승리운수(대표 임광현)로부터 후원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임 대표는 “인천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고 있는 희망풍차 사업이 꼭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조손가정 자녀들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후원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성원과 후원에 힘입어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영 기자 ku80@incheonilbo.com

포스코에너지 대학생봉사단 해단식

지난 5개월간 뜨거운 열정과 함께 한 포스코에너지 대학생봉사단이 ‘희망에너지’ 나눔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는 21일 인천 미래관에서 대학생봉사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센터장을 비롯해 약 10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학생봉사단 3기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10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46명의 대학생봉사단원들이 지난 20주간 함께 만들어진 2,326시간의 희망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며 추억을 되돌아 보는 시간도 가졌다.



/문학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남동구, 구월도매시장 철골주차장 기공식

남동구는 지난 20일 구월동에서 구월도매시장 철골주차식 주차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공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구월도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은 3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차량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

장 구청장은 “구월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짓게 됐다”면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자영 기자 ku80@incheonilbo.com

결혼합니다

△이해우(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송순례씨 차남 상구군, 김승호·이영자씨 장녀 소연양=24일 오전 11시30분, 그랜드호텔 웨딩의 전당 032-885-7111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환경관련엔지니어링/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산업환경시설 설계·시공 및 관리
세계일류의 수질환경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 (032)566-0010 / http://www.bnlnature.com

(주)동진조명
조명기구 도·소매(남동,시공) 오스람·필립스 램프, LED 조명
대표전화 (032)426-2266 석바위 시청방향 50m
인천 남구 주안4동 1542-10(영인로 452)

67년전통 돌·회갑 잔치손님 환영
평양옥
문의전화 : 882-2972/4646
영업시간 : 새벽5시부터 저녁 10시 ※동시주차 100대(실내체육관 아래)



21일 남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준공·개관식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의장, 이귀례 무형문화재진흥위원회 회장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전통유산 보존·전수 새전기 마련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개관

인천지역을 전승지로 하는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수하고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하 전수교육관)이 2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날 개관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귀례 인천시 무형문화재진흥위원회 회장 등 인천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 전수교육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전수관 개관을 시작으로 문화가 인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이어질 기 대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귀례 인천시 무형문화재진흥위원회장은 “올해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 인천에 훌륭한 전수교육관이 개관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그동안 전수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박스를 전전하거나 야외에서 연습을 해왔던 현실에서 오늘 전수교육관이 개관돼 문화계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는 말로 전수교육관 개관의미를 다시금 되짚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인천시 문화재위원을 7년간 해왔던 만큼 인천과 인연이 있었다”



개관축하 특별공연 장면.

남구 문학동 소재 ... 실내외공연장·체험관 등 갖춰

27개 입주단체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수시진행

며 “이번 전수교육관 개관이 앞으로 황해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국비와 시비 등 총 209여억원을 들여 건립된 전수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134㎡ 규모로 지어졌다.

전수교육관은 189석 규모의 실내공연장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과 함께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의 기능·예능 공방 27개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전수교육관에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4개 단체와 시 지정 무형문화재 23개 단

체가 입주,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들과 전통문화 시연·체험 행사도 수시로 개최된다.

특히 인천아시아계임과 장애인아시아계임 기간인 다음 달 19일부터 10월26일까지는 평일 2회, 주말 4회 등 총 60회에 걸쳐 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인 ‘서해안 배연신국 및 대동국’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인 ‘대금정악’ 등 무형문화재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글·사진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AG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축제

내달 3일 신포동 일대 ‘사운드바운드’

지난해 5월, 동인천 중고오디오상가와 개항장 문화지구 지역의 LP카페, 라이브클럽을 비롯한 여러 복합문화 공간에서 펼쳐졌던 음악축제 ‘사운드바운드’의 2014 시즌이 시작된다.

‘2014 사운드바운드’소리(Sound)를 되튀는(Bound) 공연명처럼 신포동 일대 6-7개의 장소를 이동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공연은 ‘아시아 인 인천’이라는 주제로 아시안게임 막바지인 10월3일 개천절에 공연이 시작된다.

이번 음악축제에는 지난해와 같이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의 옛 명소중 하나인 <탄트라>와 20여 년간 동인천을 지켜온 LP카페이자 80년대 청년문화로 대변돼 포크음악을 기본으로 젊음과 문화를 고민하고 공유해온 공간 <흐르는 물>, 동인천의 흥망성쇠를 같이 해오며 건물 자체만으로도 근대사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찻자캐 <버텨라>, 그리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인천 밴드문화의 절정기를 지켜온 뮤직클럽 <글래스톤베리> 등 시간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인천 신포동의 명소들이 함께 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원디시티, 허클베리핀, 이장현, 머쉬룸즈, 몽키즈, 블랙백 등의 뮤지션들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천지역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비어있는 건물을 아트작가들이 꾸미고, 음향장비가 투입돼 공연 가능한 공간으로 재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장현
▼블랙백



라뫼르 (La Pomme, 금단의 과실이라는 뜻)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공간은 2014 ‘사운드바운드’의 본부로 자리 잡아 공연 및 CD/LP판매와 다양한 음악관련 부스를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공개된 ‘사운드바운드’ 라인업에는 6년 만에 새 앨범 발매를 앞둔 싱어송라이터 이장현과 올해 10월 정규 3집 발매를 앞두고 있는 망각화, 기타리스트 정영근, 이한영트리오, 머쉬룸즈, 블랙백, 포레스트, 줄리아드림 등이 있다.

주최 측은 8월말 추가 라인업을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는 ‘2014 아시안게임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해외뮤지션들도 참가한다.

이번 공연은 예매와 현장판매 모두 1만원이다. 단, 예매 매진시 현장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 070-8867-1825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퓨전연극’ 발레하는 신데렐라



내달 17일 남동소래아트홀

동화 신데렐라가 발레와 연극이 합쳐진 ‘퓨전 발레’의 형식으로 다음 달 17일 남동소래아트홀 (옛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미있는 명작동화발레 신데렐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인천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인천시티발레단이 명작동화 신데렐라를 재미있고 수준 높은 발레로 각색, 연출한 작품이다.

17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7시30분 총 2차례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신데렐라’ 원작의 감동 그대로를 전하면서 현대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신선한 캐릭터 설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연단체인 인천시티발레단은 지난 2003년 창단돼 클래식 발레와 창작발레 등을 통해 발레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36개월 이상 아동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한 이번 공연은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등 이다. 032-453-5710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연수문화원 ‘문인화’ 수강 접수

내달 5일~11월28일 주1회 강좌

연수문화원이 아정 강희산 선생의 ‘문인화’ 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원 강좌는 오는 9월5일~11월28일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문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수문화원 (연수구청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7만원이다. 아정 강희산은 동양 사상과 서예의 경지가 살아서 숨 쉬며 각 소재들과 좋은 조화를 이루는 서화로 잘 알려진 작가다.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2014 INTERNATIONAL MOTORBOAT GRAND PRIX IN INCHEON

2014 인천국제모터보트대회

2014. 8. 31[SUN] 10:00~17:00 월미도 앞바다(월미문화의 거리)

주최 인천일보 인천국제모터보트조직위원회 주관 인천국제모터보트조직위원회

대회종목 : KT-1 / K-450 / 수상오토바이 *KF-1 시범레이스, 프리스타일 묘기 시범 부대행사 : 초청가수 축하공연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 진행 문의 032-452-0191~4

후원 인천광역시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항만공사 · 인천광역시 중구청 · 인천해양경찰서 · 인천중부경찰서 · 인천중부소방서 · 인하대병원 · 월미도 상가변영회



‘미사리 춘추전국시대’ 평정할 선수는

26일부터 이사장배 대상경쟁

최근 3년간 1회 이상 우승자 없어
대회 수 축소·상위권 평준화 원인
탐5 시즌내내 천적관계 형성 흥미
토너먼트 경기방식상 예측 힘들어

하반기 첫 번째 빅매치인 이사장배 대상경쟁이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미사리 경쟁장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과연 누가 미사리 경쟁장의 주인공으로 탄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세 차례 열린 대상경쟁의 특징은 매

번 우승자가 달랐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다. 과거에는 한 선수가 3회(김현태, 2010) 또는 5회(김종민, 2011)까지 챔피언에 등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대상에서 한차례 이상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는 없었다.

2012년부터 대상경주가 10회서 7회로 축소된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위권 선수들의 기량 평준화다. 이는 다시 말해 근래에 경쟁에 독보적인 강자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그랑프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금이 걸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대상 경쟁을 앞두고 역대 전적을 토대로 상위 선수들의 승패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이번 대상의 판세가 대략 그려진다.

현재 탐5는 김종민, 어선규, 손지영, 김현태, 이

용세 순이다. 시즌 두 번째 대상 우승자인 김종민은 역대 전적에서 모든 선수에 우위를 보였지만 올해는 어선규에만 6전 전승으로 강했음 뿐 김현태와는 다섯 번 싸워 한 번 밖에 이기지 못했다. 손지영에도 1승차로 뒤졌다. 이용세와는 1승 1패씩을 주고받았다.

어선규는 역대 전적에서 김종민에게만 뒤졌을 뿐 다른 선수들에게는 강했다. 올해는 이용세에만 유일하게 앞섰고(4승 1패) 김현태와는 호각세(5승 5패) 손지영에는 1승 뒤졌다(5승 6패). 김종민과 만나서는 6전 전패할 만큼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

손지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자선수들의 체면을 살리며 랭킹 3위에 올라있다. 역대 전적에서는 이용세에만 강했다. 하지만 올해는 김현태와 동승(2승 2패)을 유지했을 뿐 김종민, 어선규, 이용세에는 모두 1승씩을 앞서면서 우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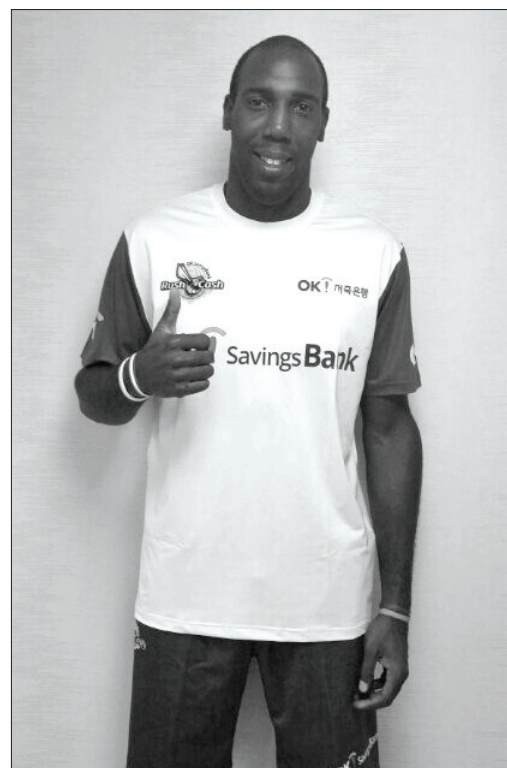
지켰다.

시즌 첫 대상 우승자인 김현태는 올해 김종민(4승 1패)과 이용세(3승 1패)에 강했지만 손지영, 어선규와는 각각 2승 2패와 5승 5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탐 5의 올 시즌 전적만을 놓고 보면 유일한 여선수인 손지영이 이번 이사장배 대상경쟁의 우승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대상 경주에서 선부를 예측은 금물이다. 당일 컨디션과 모터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관계자는 “이번 대상에서 여선수인 손지영이 객관적 성적에서 유리한 만큼 오래간만에 여성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정은기 기자 50unki@incheonilbo.com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경쟁사업본부



‘쿠바產 성벽’ 시몬 OK저축은행 합류

새 외국인선수 영입 발표

프로배구 OK저축은행(전 라시엔케이)이 쿠바 국가대표 출신 센터 로버트랜디 시몬(27·사진)을 영입했다.

OK저축은행은 21일 2014-2015 V리그에서 함께 뛴 외국인 선수로 이탈리아 세리에 1부 피아첸차 팀을 2014년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이끈 시몬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206cm·115kg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지닌 시몬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쿠바 대표팀의 센터로 활약했고, 2010년 세계남자배구선수권에서는 베스트 블로커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뛴 2014년 남자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베스트 미들 블로커로 뽑혔다.

OK저축은행은 특히, 시몬이 역대 V리그 외국인 선수와는 달리 센터 포지션의 선수이면서도 동시에 라이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높이 샀다.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은 “신인급 선수가 많은 우리팀에 풍부한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선수 시몬이 합류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도 신행팀 돌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몬은 지난 15일 입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선수단에 합류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창단과 함께 프로배구에 데뷔한 OK저축은행 배구단은 11승 19패, 승점 34점으로 남자 7개팀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뽐냈다.

/안산·안병선·이종만기자 bsan@incheonilbo.com

사진제공=OK저축은행 배구단

정현, US오픈 성인부 ‘가쁜한 출발’

남자단식 예선 첫 승 성공

3연승 달성시 본선행 가능

정현(250위·삼일공고·사진)이 처음 참가한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825만1760달러) 남자단식에서 첫 승을 거두고 본선 진출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정현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단식 예선 1회전에서 아구스틴 벨로티(328위·아르헨티나)를 2대 0(7대 6<4>, 6대 2)으로 꺾었다.

첫 세트는 난타전 끝에 6대 6, 매치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지만 놀라운 집중력으로 승리(7대 4)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어 두 번째 세트 초반 상대의 강력한 서브와 리턴에 흔들리며 1대 2로 쫓기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스트로크에서 우위를 점하고 확실한 점수 관리로 내리 5게임을 따내 6대 2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예선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지미왕(132위·대만)과 2회전에서 겨룬다.

지미왕은 1회전에서 대니얼 애번스(176위·영국)에 2대 1(4대 6, 7대 6<9>, 6대 2)로 역전승을 거뒀다.

US오픈 남자단식 예선전은 3연승을 거두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



WLH 화림 만성기 전문 요양원

치매, 암, 중풍, 고혈압 당뇨후유증 노인질환

암 환자 본인부담금 5%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20%
1급 요양보호사 24시간 간병

의학·한의학 협진병원과 촉탁진료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20여명의 계산자연수영강사로 오세요!

계산자연수영장(풀)

울창한 숲,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 샤워장 무료
- Culligan 정수기 사용
- 넓은 주차장 확보

취사가 가능

※교통편안내
▶ 770번 자연물장 하차
▶ 시내버스 1번, 79번 자연물장 하차

계산로 계산거리
계산역 계산역거리
계산수영장 교통편안내

☎032)545-37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5-1

문학산내 청학(숲속)풀장

부설 청학숲유치원

- 문학산 해발 100m고지, 울창한 숲!!, 맑은물!!
- 풀장 水 : 문학산 약수터에서 나오는 山水
- 맑은 공기 시원한 산바람
- 최신AI Filter 정수기 사용

7월19일(토) 개장

성인풀장 · 유아풀장 · 영아풀장

취사가 가능

인터넷주소 청학풀장, 청학유치원

■ 시내버스: 112, 46, 65-1번 (6.8번은 송도역 하차)
■ 마을버스: 523번

T.032)832-01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27

입원문의 751-8370, 8374 영종공항신도시

AG 주요종목 조추첨 결과

남자축구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H조
한국	우즈베키스탄	오만	일본	태국	북한	아랍에미리트	이란
말레이시아	홍콩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몰디브	중국	인도	베트남
사우디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이라크	동티모르	파키스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여자축구

A조	B조	C조
한국	일본	북한
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요르단	홍콩
몰디브	대만	

남자농구 (예선 A·B조 1·2위 조별리그 합류)

예선A조	예선B조	C조	D조	E조	F조
몽골	사우디	중국	한국	이란	일본
홍콩	카자흐스탄	대만	요르단	필리핀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A조 2위	B조 2위	A조 1위	B조 1위
몰디브	인도				

여자농구 (예선 상위 2팀 8강 합류)

8강 대진

중국	예선2위	태국	대만	일본	인도	한국	예선1위
----	------	----	----	----	----	----	------

• 예선 출전국: 홍콩, 카자흐스탄, 몽골, 네팔, 카타르

남자배구

A조	B조	C조	D조
한국	일본	이란	태국
카타르	사우디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몰디브	투르크메니스탄
대만	쿠웨이트	홍콩	미얀마

여자배구

A조	B조
한국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몰디브
일본	대만
홍콩	

남자핸드볼

A조	B조	C조	D조
사우디	이란	카타르	한국
바레인	쿠웨이트	중국	일본
몽골	홍콩	오만	인도
		아랍에미리트	대만

여자핸드볼

A조	B조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홍콩
인도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남자 배드민턴 단체전

중국	홍콩	몰디브	말레이시아	마카오	몽골	한국	인도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	----	-----	-------	-----	----	----	----	----	----	----	-------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몰디브	인도네시아	인도	마카오	태국	대만	홍콩	한국
----	-------	----	-----	-------	----	-----	----	----	----	----

금사냥 경로 확정 ... ‘아시아 제패’ 여정 닳 올리다

• 축구

男 대체적 무난...사우디 경계해야

女 지소연 합류 이전 경기력 관건

• 배구

男 강적없어 준결리그 진출 청신호

女 일본·태국 한 조 가시밭길 예상

• 핸드볼

개최국 자격으로 조 선택권 혜택

男 중동·女 일본 조별리그서 피해

• 체조

손연재 포함 대표팀 B조에 편성

결승 진출시 맞수 덩센유에 조우

주요종목 조 추첨 결과 분석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조 추첨식 결과 각 종목 대표팀의 운명은 엇갈렸다. 이광종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은 21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 추첨 종료 직후 “부담스럽지 않다. 경계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첫 상대인 라오스는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된다.

다만 이 감독이 밝혔듯, 경계대상 1호는 단연 사우디아라비아다.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다는 하지만 5전 2승 2무 1패로 근소한 차이다. 여자축구는 일단 조별리그를 넘어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이 합류하는 8강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4년 전 광저우대회에서 아쉽게 3위를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자 대표팀은 태국, 인도, 몰디브와 한 조로 배치됐다. 여자대표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첫 훈련을 시작,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남·여 배구 대표팀은 모두 A조에 속하게 됐지만 두 팀의 운명은 엇갈렸다.

남자대표팀은 카타르, 카자흐스탄, 대만과 함께 A조로 배치됐다. 큰 무리 없이 준결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8년 만에 금메달 획득을 향한 기본 좋은 시작을 알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최고 호적수 ‘이란’은 C조에 편성됐다. 김연경(페네르바체·26)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지난 1994년 히로시마대회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 나선다. 지난 대회 우승팀 중국은 패했지만 아시아의 강호 일본(세계 4위), 태국(세계 12위)과 같은 A조에 속하게 돼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된다. ‘우생순’의 드라마를 이어가는 남·여 핸드볼 대표팀의 전망은 좋다. 개최국 자격으로 조 선택권을 받은 한국은 모두 ‘강적’을 피해 자리 잡았다. 남자대표팀은 중동팀을 피해 일본, 인도, 대만과 함께 D조에 들어갔으며, 여자대표팀은 일본을 피해 태국, 중국, 인도가 속한 A조를 선택했다. ‘체조 요정’ 손연재(20)를 필두로 한 한국 리듬체조 대표팀은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B조에 속해 경기를 치른다. 일본의 신에 미나카와 카호(17)와 하야카와 사쿠라(17)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승에 오르면 손연재의 라이벌, 중국의 덩센유에(22)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kky89@incheonilbo.com

난징 유스올림픽 연이은 승전보

김동주·이신희 펜싱 대륙별 단체 우승

골프 이소영 종합 1위 질주 입상 유력



제2회 하계청소년올림픽 골프 여자개인전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소영(안양여고).

김동주(반안바이오학교)와 이신희(창문여고)가 중국 난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펜싱 대륙별 단체전에서 우승, 귀중한 두 번째 금메달을 고국에 안겼다. 20일 홍콩, 일본 선수와 팀을 이뤄 아시아1선발로 참가한 두 선수는 8강전에서 유럽4선발을 30대 22, 준결승에서 유럽2선발을 30대 29로 물리친 뒤 결승전에서 유럽1선발을 30대 26으로 꺾어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섰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처음 치러지는 골프 종목 여자 개인전에서 이소영(안양여고)이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소영은 20일 중산국제골프코스에서 열린 2차 예선에서 68타를 쳐 2위를 차지했지만 예선 1차전의 성적을 합산한 결과 현재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어 입상이 유력하다. 골프 개인전은 3차례의 예선전 성적을 종합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또 탁구 단체전에 출전한 박세리(단원고)와 김민혁(창원남산고)은 남여 단체전 예선에서 카자흐스탄을 3대 0으로 누르고 1승을 거뒀고, 육상의 김경태(경기모바일고)는 남자 110m 허들에서 13초50의 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테니스의 이덕희(마포고)는 경기 도중 경련을 일으켜 단식 8강전 및 정운성(양명고)와 조를 이뤄 출전한 복식경기에서 기권해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내일~24일 연희크리켓경기장서 AG 테스트 이벤트 개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크리켓협회 주최로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인천 서구 연희동 연희크리켓경기장에서 ‘한국-일본 크리켓 친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일본 남자 대학 선발전과 3경기 리그전(23일 오후 2시, 24일 오전 9시30분·오후 2시)으로 진행되며, 인천아시아게임 크리켓 경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연희크리켓 경기장에서 처음 열리는 크리켓 국제대회”라며 “인천아시아게임 크리켓 종목의 준비 상태와 대회 운영을 경험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시즌 프로배구관 새바람 일으킬 신인은

드래프트 접수 마감...인하대 3명·경기대 2명 참가 신청

여자부 ‘쌍둥이 국가대표’ 이재영·이다영 포함 시선집중

프로배구 2014~2015시즌 남녀 신인선수 드래프트 신청이 마감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이번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남자부 대학 졸업 예정자 총 44명 중 36명과 학교장 추천을 받은 3학년 재학생 4명, 2학년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1명 등 총 42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인하대에서는 4학년 박원빈(198cm·센터), 황승빈(183cm·세터), 3학년 조진구(172cm·리베로) 등 3명이, 경기대에서는 3학년 정바다(199cm·센터), 2학년 이민욱(194cm·세터) 등 2명이 신청했다. 특히, ‘2013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와 최근 광주에서 펼쳐진 ‘2014 현대라이프국제대학배구’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리베로 오재성(성균관대)도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했다. 여자부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69명 중 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드래프트 참가선수 중 최근 2014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국가대표 공격수와 세터로 맹활약을 펼친 쌍둥이 이재영(레프트), 이다영(세터, 이하 선명여고)도 포함돼 있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2014~2015시즌 남녀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9월 11일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여자부는 오전 11시, 남자부는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세월호 특별법 수사·기소권 부여 재촉구

가족대책위 총회, 여야 재합의안 거부...대통령 호소문 낭독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전제 총회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유족 230여명, 176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게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이지 또는 그밖에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담긴 특별법을 검토할지를 놓고 진행된 투표에서 132 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은 특별법에 표를 던졌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거부했다.

가족대책위 유정근 대변인은 “투표는 재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특별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의 목표가 진

상 규명인 만큼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에 유족의 마음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었다”며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유족을 만날 것, 여야는 재합의안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것, 여야와 유족 간 3자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유족들은 투표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등에서 제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2시간 가까이 가졌다.

전날인 19일 재합의안 공개 직후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유족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유족 동의를 얻지 못해 두 번 연속 불발되면서 유족 설득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총회 직전 이곳을 찾아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재합의안 수용 설득에 나섰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요양보험료 횡령 시설운영자 입건

군포경찰서는 요양보호사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역대의 요양보험료를 횡령 혐의(사기)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김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퇴직하거나 입사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0여명이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습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 1억86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을 운영하면서 임의의 수강생의 이름을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전남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전국에 많은 비...불어난 하천

경기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21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변에서 시민들이 불어난 하천물을 바라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웅인시의회 A의원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의회와 A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직을 맡고 있어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의원직에 걸맞는 행동이나는 지적이다.

천인구에서 한 어린이집 대표를 하던 A씨는 이번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해 놓고도 의원이 되기 전 자신이 맡고 있던

용인시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물의

어린이집 대표 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7조(징

계의 요구)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된다.

안전행정부 선거의뢰와 관계자도 “시의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대표나 원장은 겸직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의회 의원 동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A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총 489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중 시 보조금은 985만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A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난달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 중으로 자문 결과와는 별개로 어린이집 대표에서는 물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인=허천희 기자 hurchi@incheonilbo.com

경기청 교통정체 해소책 주행속도 향상효과 톡톡

신호연동·도로구조 개선

스피드업 프로젝트 성과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교통속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스피드업 프로젝트’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유명하다. 도로를 관할하는 안양·의왕·수원·화성·평택시 별로 신호체계가 서로 달라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신호체계를 180초 간격으로 동일하게 조정했고, 별도의 시설물 설치 없이 해당 구간 주행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주변도로는 아침마다 정체가 극심했다.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삼성전자 입구(삼성삼거리)를 앞두고 좌회전할 공간이 부족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에 경찰은 직진차로 1개를 시간제 좌회전 차로로 바꾸면서 이 구간 정체가 크게 해소됐다.

이처럼 경기경찰이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광역 신호연동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피드업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주행속도가 2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40.8km에서 49.8km로 향상됐다.

대상 구간은 지역내 도로 가운데 제한속도의 5~60% 미만으로 운행되던 322곳과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 10곳 등 정체구간 332곳이다.

경찰은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갓길을 활용하고,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제거하는 한편,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해 도로구조를 개선했다.

또 차량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 경찰서를 10개 권역으로 분류, 신호체계를 조정했다.

정체구간의 주행속도가 높아지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경제적 비용 산출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비용은 2조48억원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주요 도로에 정체가 해소되면서 별도의 교통시설이나 도로건설 없이 주행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체구간을 분석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도교육청, 수원고 화성학원 이사진 전원 취임취소

경기도교육청은 수원고 학교법인 화성학원이 허위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7명 전원에게 취임 취소 결정을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화성학원 이사회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진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법인인 이사들의 서명을 백지에 받아 회의록을 작성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개최된 회의에서 의결된 이사선임 등 안건들은 모두 당연무효인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과 그 이후에 이뤄진 이사선임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

으나, 수사기관은 사문서 위조 건은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학교법인 직원 이 이사진의 출장비 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은 인정돼 모두 회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이사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돼 취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학원 측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방법원에 취임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성학원 측 변호사는 “도교육청 설명과 달리 31번의 회의 중 이사선임과 같은 중요 안건을 다룬 회의에는 두 차례 모두 참석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사항이 당면무효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간소개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랑이다

명당(明堂)은 없다. 그러나 필요하다. 명당은 마음속에 있으며, 찾아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할 어떤 곳이다.

경기도는 근본의 땅(根本之地)이다

2014년은 ‘경기도’라고 부른 지 600년이 되는 해다. 또 2018년이면 ‘경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지 1000년이 된다.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明堂)이다’는 2014년 경기도 600년을 맞아 출간되었다.

언제부터 ‘경기’였을까?

“언제부터 ‘경기’라고 불렀을까?”
“경기 출신의 역사적 여성인물은 누가 있을까?”
“경기도의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고향 경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다. 경기도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다.

〈경기도 600년〉의 대서사시!



현직 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 이야기!

경기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역사·문화 원형을 재발견한다.

경기 출신 인물/경기 중가/사동팔달 경기 옛길/ 8일간의 화성 행차/경기 먹거리/경기 명당/조선왕릉/생태계의 보고 DMZ/경기 문화상징/경기 경관/종교의 성지/ 경기도/농업의 중심/ 경기/경기 산업의 현주소/다문화 해방구 '원곡동 아리랑' 등.

경기의 뿌리에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경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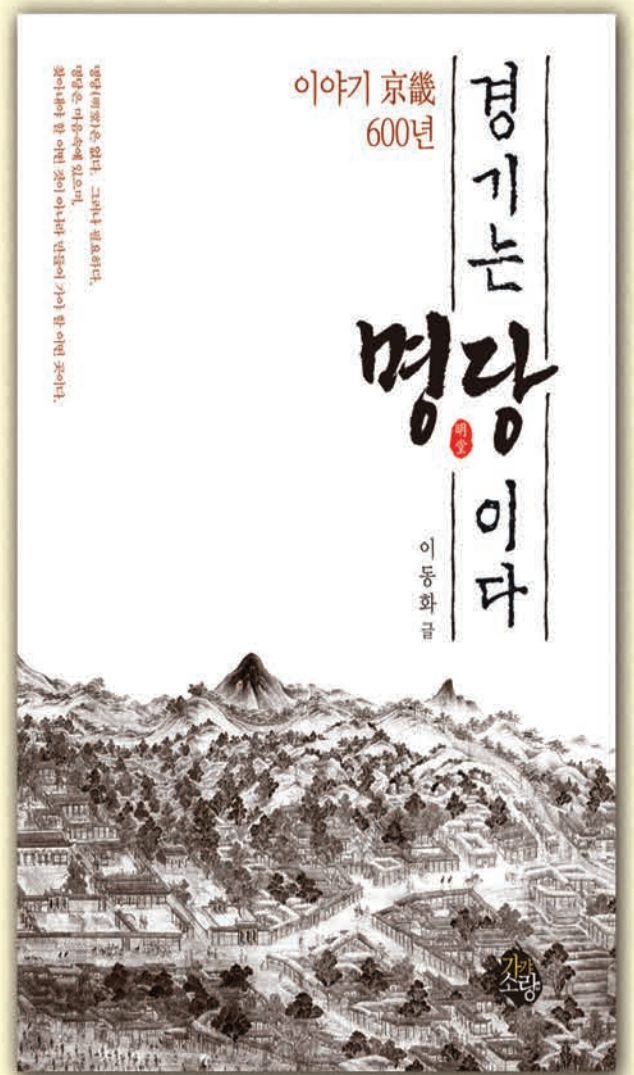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경기도가 앞으로 새로운 60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담겨 있다. 경기도에 관련된 풍부한 자료 조사는 물론이고 저자가 직접 뛰어다니는 생동감 넘치는 취재 내용이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까지 제공할 것이다. 경기도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주말나들이하기 좋은 명소,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명소, 역사체험하기 좋은 명소 등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자소개

1960년 전라남도 작은 섬 소안도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기자였고 아직도 기자다. 인천일보 문화부 기자 때 ‘경기도 600년, 천년을 내다본다’라는 제목의 긴 기획·연재를 했다.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明堂)이다>는 그 때 취재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경기도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대세다. 그래서 ‘중이는 죽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다매체 시대를 맞아 치열한 콘텐츠 경쟁력을 요구한다. 시대정신이 깃든 역사·문화 이야기는 좋은 소재일 것이다. 필자는 나이 오십 상을 넘긴 베이비붐 세대다. ‘명퇴’라는 시대의 흐름에 흔들릴 때에도 나는 <경기 천년>의 애깃거리를 찾아 지금도 ‘오늘’을 기록하고 있다.

ahwa21@naver.com



이동화 지음/가가소랑/신국판/반양장/328페이지/컬리/정가 20,000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87-1, 이화빌딩 6층 (주)가가소랑 02-336-9933

www.kukyung.com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기원

인천 9경 선정 투표

당신이 구경하고 싶은 9경에 투표해주세요!

인천의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투표기간 | 2014. 7. 10(목) ~ 8.31(일)

당첨자발표 | 2014. 9. 3(수)



day ()

참여방법

1. www.kukyung.com에 접속 또는 검색창에 '인천9경'
2. 인천 9경의 후보지들을 세세하게 확인한다.
3. 9경으로 어울리는 후보지 9곳을 정하여 <투표하기>
4. 투표를 마치고 이벤트 창에 참여정보를 입력하면 **쵸!**
 - 9곳에 투표를 마치셔야 이벤트 참여가능합니다.
 - 참여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경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 (60명)
-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매 (20명)
- 쇼핑문화상품권 30,000원권 1매 (10명)
- 쇼핑문화상품권 50,000원권 1매 (4명)

day ()